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최 배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지공예문화에 대한 연구동향분석

2022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한국문화콘텐츠전공
유 서 경

한지공예문화에 대한 연구동향분석

최 배 영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한국문화콘텐츠전공
유 서 경


인 준 서

유서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2년 5월

심사위원장 주 영 애  (인)

심 사 위 원 김 훈 주  (인)

심 사 위 원 최 배 영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을 자료로 수집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한지공예문화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기존의 연구 체계를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와 더불어 한지공예문화 계승의 측면에서 한지공예기법의 연구동향, 한지공예문화 진흥의 측면에서 한지공예문화산업의 연구동향 그리고 한지공예문화 가치 구현의 측면에서 한지공예문화콘텐츠의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발전적인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분석 범위로 한정하고 2021년 9월 1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국회도서관 사이트에서 ‘한지공예’, ‘전통한지공예’를 키워드로 검색해 최종적으로 학위논문 80편과 학술지 논문 14편의 총 94편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지공예문화의 연구 체계는 발표 연도, 발표지 유형, 연구 대상, 연구 방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06년부터 한지공예문화 관련 연구물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 가장 많았으며 2017년 이후 연구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지 유형으로는 석사학위논문 79편, 학술지 논문 14편, 박사학위논문 1편이었다. 연구 대상은 인적 대상 논문 41편, 물적 대상 논문 53편이었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문헌고찰 46편, 질문지 조사 22편, 내용분석 12편, 사례조사 10편, 면접조사 3편, 웹 개발 1편이었다. 이로 보아 향후 한지공예문화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한지공예 관련 매체의 내용분석과 사례 탐구, 무형문화재나 공예작가 등 전문가 대상의 면접조사, 한지공예에 IT 기술을 접목한 웹 개발 등의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한지공예기법의 연구동향은 지승기법, 지장기법, 지호기법, 전지기법, 복합기법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복합기법 연구가 53편으로 가장 많았고 지장기법 17편, 지호기법 9편, 전지기법 8편, 지승기법 7편의 순으로 발표되었다.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대상은 인적 대상과 물적 대상 모두 복합기법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적 대상은 지장기법, 지승기법, 지호기법, 전지기법의 순이었으며, 물적 대상은 지장기법, 지호기법, 전지기법, 지승기법의 순을 보였다. 이에 한지공예문화 계승의 측면에서 앞으로 복합기법뿐 아니라 개별 기법에 대한 원형을 조명하고 전승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연구의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공예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한지공예문화에 있어서도 유아로부터 노인에 이르는 인적 대상의 다양한 한지공예기법 경험 연구, 재화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물적 대상에 대한 한지공예기법 적용 연구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지공예문화산업의 연구동향은 개발, 유통, 전시, 창작·제작, 활용의 분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발표된 논문은 활용 분야가 46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창작·제작 분야 37편, 개발 분야 8편, 전시 분야 2편, 유통 분야 1편의 순이었다.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대상에 있어 인적 대상은 개발 분야와 활용 분야에서만 논문이 발표된 반면 물적 대상은 한지공예문화산업의 전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특히 창작·제작 분야의 연구물이 많았다. 한지공예문화산업별 한지공예기법 연구는 활용 분야에서 복합기법 연구가 월등히 많았고 창작·제작 분야에서는 모든 한지공예기법이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한지공예문화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한지공예기법 관련 교육, 상품, 스마트콘텐츠 등의 개발 산업, 공모전이나 유물의 전시 산업, 공예품의 유통 산업 등의 연구도 촉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지공예문화콘텐츠의 연구동향은 장식용품, 소품, 생활용품, 공공콘텐츠, 에듀테인먼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발표

된 연구물은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이 40편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생활용품 영역 27편, 공공콘텐츠 영역 10편, 장식용품 영역 9편, 소품 영역 6편, 디지털콘텐츠 영역 2편이었다.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대상은 인적 대상이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물적 대상은 생활용품 영역의 연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한지공예기법은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에서 복합기법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생활용품 영역에서는 각 한지공예기법이 연구되었다.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한지공예문화산업은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에 활용 분야의 연구가 많았으며, 생활용품·소품·장식용품의 영역에서는 창작·제작 분야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에 한지공예문화의 가치 구현을 위해서는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는 자료나 정보 관련 콘텐츠, 그리고 공공을 위한 전시나 프로그램에 대한 콘텐츠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지공예기법을 토대로 소비자가 자유롭게 소지하고 이동할 수 있는 소품 및 실내 장식을 위한 용품 등의 연구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한지공예문화	3
2. 한지공예문화산업	22
3. 한지공예문화콘텐츠	23
III. 연구방법	26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26
2. 분석 방법	26
IV. 연구결과 및 해석	29
1. 한지공예문화 연구 체제에 따른 분석	29
2. 한지공예기법에 따른 분석	42
3. 한지공예문화산업에 따른 분석	52
4. 한지공예문화콘텐츠에 따른 분석	63
V. 결론 및 제언	77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II-1> 한지의 종류	11
<표 II-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토대로 본 문화콘텐츠의 영역	24
<표 IV-1> 연도별 발표지 유형	33
<표 IV-2> 연도별 연구 대상	35
<표 IV-3> 연도별 인적 연구 대상	37
<표 IV-4> 연도별 물적 연구 대상	39
<표 IV-5> 연도별 연구 방법	41
<표 IV-6>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발표 연도	44
<표 IV-7>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발표지 유형	46
<표 IV-8>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대상	47
<표 IV-9> 한지공예기법별 인적 연구 대상	49
<표 IV-10> 한지공예기법별 물적 연구 대상	50
<표 IV-11>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방법	51
<표 IV-12>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발표 연도	54
<표 IV-13>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발표지 유형	56
<표 IV-14>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대상	57
<표 IV-15>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인적 연구 대상	58
<표 IV-16> 한지공예문화산업별 물적 연구 대상	60
<표 IV-17>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방법	61
<표 IV-18> 한지공예문화산업별 공예기법 연구	62

<표 IV-19>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발표 연도	65
<표 IV-20>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발표지 유형	67
<표 IV-21>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대상	68
<표 IV-22>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인적 연구 대상	69
<표 IV-23>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물적 연구 대상	71
<표 IV-24>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방법	72
<표 IV-25>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한지공예기법 연구	74
<표 IV-26>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한지공예문화산업 연구	75

그림 목 차

〈그림 II-1〉 무구정광대다라니경	6
〈그림 II-2〉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6
〈그림 II-3〉 지승 호리병	17
〈그림 II-4〉 지승 망건통	17
〈그림 II-5〉 지호 함지박	19
〈그림 II-6〉 호랑이 베개	19
〈그림 II-7〉 지장 이층장	21
〈그림 II-8〉 지장 서류함	21
〈그림 III-1〉 한지공예문화 연구동향의 분석 흐름도	28
〈그림 IV-1〉 발표 연도별 논문 편수	30
〈그림 IV-2〉 발표지 유형별 논문 편수	30
〈그림 IV-3〉 연구 대상별 논문 편수	31
〈그림 IV-4〉 연구 방법별 논문 편수	32
〈그림 IV-5〉 연도별 발표지 유형 동향	34
〈그림 IV-6〉 연도별 연구 대상 동향	36
〈그림 IV-7〉 연도별 인적 연구 대상 동향	38
〈그림 IV-8〉 연도별 물적 연구 대상 동향	40
〈그림 IV-9〉 연도별 연구 방법 동향	42
〈그림 IV-10〉 한지공예기법에 따른 논문 편수	43
〈그림 IV-11〉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발표 연도 동향	45

<그림 IV-12>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발표지 유형 동향	46
<그림 IV-13>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대상 동향	48
<그림 IV-14> 한지공예기법별 인적 연구 대상 동향	49
<그림 IV-15> 한지공예기법별 물적 연구 대상 동향	50
<그림 IV-16>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방법 동향	52
<그림 IV-17> 한지공예문화산업에 따른 논문 편수	53
<그림 IV-18>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발표 연도 동향	54
<그림 IV-19>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발표지 유형 동향	56
<그림 IV-20>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대상 동향	57
<그림 IV-21>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인적 연구 대상 동향	59
<그림 IV-22> 한지공예문화산업별 물적 연구 대상 동향	60
<그림 IV-23>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방법 동향	61
<그림 IV-24> 한지공예문화산업별 공예기법 연구 동향	63
<그림 IV-25> 한지공예문화콘텐츠에 따른 논문 편수	64
<그림 IV-26>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발표 연도 동향	66
<그림 IV-27>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발표지 유형 동향	67
<그림 IV-28>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대상 동향	68
<그림 IV-29>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인적 연구 대상 동향	70
<그림 IV-30>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물적 연구 대상 동향	71
<그림 IV-31>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방법 동향	73
<그림 IV-32>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한지공예기법 연구 동향	74
<그림 IV-33>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한지공예문화산업 연구 동향	76

I. 서론

21세기는 정보와 지식의 기반 위에 문화적인 코드를 음미하고 소통하는 시대이다. 세계 여러 나라는 자국의 문화에 내재 되어 있는 고유한 가치를 발굴하여 활용하는 전통문화의 활성화에 경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단순히 전통문화를 전승하여 보존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창조적인 계승과 발전을 위해 정부 기관, 학계, 문화단체 등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전통문화의 일환인 한지공예는 한지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민중의 삶 속에 이어져 온 민속공예이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종이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현존하는 유물이나 기록으로 볼 때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제지술을 우리 토양에 맞게 토착화시켜 더욱 우수한 품질의 한지를 생산해 이용할 수 있었다.¹⁾ 한때 무분별한 서구화와 급속한 산업화로 쇠퇴일로에 있기도 했던 한지공예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아 전통공예의 한 분야로서 그 위치를 당당히 지켜나가고 있다. 이로 보면 전통 한지가 주재료로 쓰이는 한지공예는 문화적인 정체성과 민족정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각계각층에서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면서 연관된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1999년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에는 공예 및 공예품에 관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이 되고 있다. 이에 한지공예도 고유한 기법에 대한 조명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산업 분야로의 접목 그리고 문화콘텐츠로서의 영역 확장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1) 이승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지, 현암사, 2007, p.39.

한지공예에 대한 문화산업은 전통적인 한지공예 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과 관련된 산업이다. 이러한 한지공예문화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콘텐츠는 한지공예에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의 문화적 요소가 체화(體化)된 산업이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 및 서비스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지공예의 보전과 진흥을 통해 한지공예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성장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적인 삶에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한지공예문화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제정된 1999년을 기점으로 볼 때 이전에는 역사적인 고찰이나 한지공예의 유형에 관한 연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지만 2000년 이후에는 논문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한지공예산업이나 한지문화상품에 관한 연구의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각기 개별적인 연구물들이 발표되어왔을 뿐 통합적인 관점에서 한지공예문화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시도는 미진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자료로 수집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한지공예문화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기존의 연구 체제를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와 더불어 한지공예문화 계승의 측면에서 한지공예기법에 관한 연구동향과 한지공예문화 진흥의 측면에서 한지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연구동향 그리고 한지공예문화 가치 구현의 측면에서 한지공예문화콘텐츠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발전적인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지공예문화

1) 한지

(1) 한지의 명칭

한지(韓紙)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닥나무의 섬유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초지(抄紙) 기법²⁾에 따라 제조된 종이로, ‘닥’을 주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닥종이’라고도 부른다. 한지를 초지할 때 활용되는 방법과 도구들은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선조들의 과학기술과 장인정신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통으로 전해지는 독자성과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 한지를 제조하는 장인들을 한지장(韓紙匠)이라고 하며 국가에서는 200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117호로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³⁾

한지라는 용어는 근대 이후에 생긴 말로 그 이전에는 종이, 조히 등으로 불렸으며 종이의 재료, 색채, 용도, 크기, 두께, 산지, 품질 등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된다. 닥나무를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에 따라 닥종이, 닥지로 부르기도 하고 용도에 따라 간지, 창호지, 배접지 등으로 불렸다. 또 종이 한 장을 만드는 데 백 번의 손이 간다고 해서 백지(百紙)라고도 하였다. 특히 시대에 따라 뛰어난 품질로 인해 계림지(鷄林紙)·삼한지(三韓紙)·고려지(高麗紙)·조

2) 한지의 전통적 초지(종이뜨기) 방법은 외발 초지이다. 하나의 끈으로 묶여 있는 틀 위에 발을 놓고 앞물질을, 옆물질을 반복한다. 두께 조절을 위해 습지 두 장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겹쳐 한 장의 한지를 만든다.

3) 정선화 외, 우리 종이 한지: 공정조사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p.9.

선지(朝鮮紙)로 불리며 중국에서도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⁴⁾

개항 이후 서양에서 도입된 종이인 양지(洋紙)가 사용되면서 중국 종이를 뜻하는 화지(華紙), 일본의 종이를 일컫는 화지(和紙)와 대비하여 한지라는 명칭이 만들어졌다.

(2) 한지의 역사

종이가 발명되기 전, 대부분의 문자 기록 매체는 거북이의 등껍질이나 나무처럼 무겁거나 부피가 컸다. 이는 기록이나 처리 과정이 복잡했고 비싸서 얻기도 어려웠다. 종이가 발명되고 개량이 이루어진 뒤에야 본격적으로 기록을 통해 지식이 전파될 수 있었으며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후대로 오면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지식의 전달 매체가 등장했지만 종이는 여전히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지식전달의 매체이다.

우리나라에서 종이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유물과 기록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제지술이 전래 된 시기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견해로 언급되고 있다. 첫 번째 견해는 한지의 주원료인 ‘저(楮, 닥나무)’가 중국에서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 사이에 ‘닥’ 혹은 ‘디악’으로 읽혔던 점에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 ‘저’의 음이 ‘닥’으로 읽히던 시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2세기경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저’를 사용한 제지법과 종이의 명칭이 함께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⁵⁾

두 번째 견해는 3세기경, 후한 말 낙랑 시대(B.C 108~A.D 313)에 중국으로부터 제지술이 전해졌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1931년 평양시 낙랑구역에 있는 채협총에서 낙랑 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물에 젖은 닥종이로 추정되는 덩

4) 최영숙·이주은, 한눈에 보는 한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0, p.14.

5) 정선영, 종이의 역사, 국립민속박물관, 1995. pp.128-129.

어리가 발굴된 것이다.⁶⁾ 또한 3세기 말에서 4세기 말에 걸쳐 중국에서의 난리를 피해 우리나라로 온 이주민들이 많았는데 이들 가운데 제지 장인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다.

세 번째는 4세기 말로 보는 견해로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불교 전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4세기 말, 한반도에 불교가 들어올 때 불경과 함께 제지술도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 재위 346-375) 때 왕인(王仁) 박사가 『천자문』과 『논어』를 일본에 전한 것도 이 시기이다.⁷⁾

네 번째 견해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이전에 제지술이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6세기 신라에서는 당나라로 간 유학생과 승려들이 많아서 그들을 통해 먹, 붓, 종이 만드는 법이 전해졌을 것으로 본다.⁸⁾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따르면 610년 고구려의 담징(曇徵)이 채색과 종이, 먹, 맷돌 등을 만드는 방법을 전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⁹⁾ 담징이 종기와 함께 일본에 전했다는 맷돌은 종이 제조 도구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제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7세기 초부터 우리나라 종이는 긴 섬유를 두드려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여 두껍고 질긴 특징을 보이며 이는 오늘날의 한지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¹⁰⁾ 대표적으로 신라의 불교 유적지에서 출토된 불경에 쓰인 한지(韓紙)를 보면 그 질이 매우 우수했다. <그림 II-1>과 같이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은 절의 대규모 중창 시기인 751년에 간행된 것으로 현존하는 최고의 목판 인쇄물로 한지의 역사를 조명하는 사료이다. 이러한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함께 제지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자료는 신라 경덕왕(景德王, 재위

6) 금광복, 색지공예, 대원사, 2000, p.10.

7) 정선영, 한지의 역사, 종기와 산림문화, 산림문화전집 14, 2020, p.57.

8) 윤순심, 우리나라 지장(紙裝)공예 연구,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3.

9) 김영호, 한지공예의 변천 과정 및 그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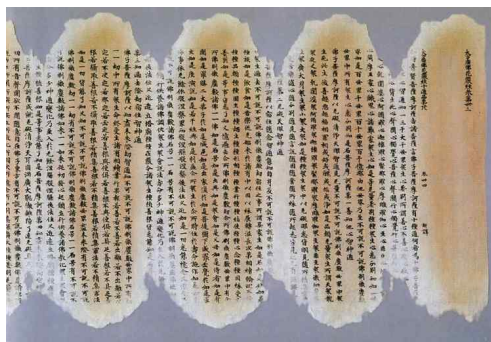
10) 정선영, 종이의 역사, 국립민속박물관, 1995, p.130.

742-765) 14년인 755년에 제작된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이다. <그림 II-2>에 제시한 이 사경(寫經)은 신라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종이를 만든 사람과 지역을 명시하고 있는 점은 이례적인 일로서 제지 역사 연구에 더없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결국 이 두 사경은 한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다.¹¹⁾



<그림 II-1>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그림 II-2>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1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종이문화, 신유, 1995, p.11.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751년 전후로 종이 제조에 특유의 고해(叩解)¹²⁾ 과정을 거침으로써 두껍고 질긴 한지의 특성을 갖게 되었다. 현존하는 8세기 이후의 종이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아 7세기 이전에 상당한 기술이 축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³⁾

고려 시대는 우리 종이 도약을 이룩한 발전기였다.¹⁴⁾ 문종(文宗, 재위 1046~1083) 연간에는 관영(官營) 서점을 설치하여 도서의 출판과 판매를 하였는데 이는 인쇄술과 제지술의 향상을 기반으로 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초기부터 북방 민족의 잦은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도한 대대적인 불경 간행 사업으로 한지에 대한 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당시 종이 소비의 증가는 한지 제지술의 발전으로 귀결되었으며, 여러 종류의 종이가 생산되었다. 닥나무의 재배를 권장했던 시기임¹⁵⁾과 동시에 누에고치로 만든 고려지인 만지를 제작할 수 있었다.¹⁶⁾

고려 시대에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지는 조선 시대에 이르러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따르면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닥나무가 생산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종이와 관련된 국가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태종 15년(1415)에 조지소(造紙所)가 설치되었고 세조 11년(1465)에 조지서(造紙署)로 개칭이 되었다. 또한 조선 시대에는 경공장(京工匠)과 외공장(外工匠)에 소속된 지장(紙匠)이 다른 수공업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할 정도였다.¹⁷⁾ 특히 세종(世宗, 재위 1418~1450)대에는 문화정책으로 실록 편찬, 지도 제작과 집성, 법전·농서·의학서 등의 간행 사업이 활발하여 한지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12) 고해(叩解)는 섬유질을 갈지 않고 두드려 풀어서 만드는 방식으로 두껍고 질긴 한지를 만드는 비법이다.

13) 이승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지, 현암사, 2007, p.42.

14) 정선영, 종이의 역사, 국립민속박물관, 1995, p.130.

15) 김병기, 한국과학사, 이우, 1982, p.393.

16) 김정, 이야기가 있는 종이박물관, 김영사, 2007, p.125.

17) 김삼기, 朝鮮後期 製紙手工業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p.10.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양란(兩亂)으로 제지 시설이 파손되고 지장들이 뿔뿔이 흩어져 한지 생산이 침체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 대동법의 시행으로 저전(楮田)이 곡식을 심는 땅으로 전환되어 지료(紙料) 생산이 어렵게 된 결과, 지물(紙物)의 과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전란 후 대외적으로 중국의 과도한 공납지(貢納紙) 요구가 커지고 대내적으로는 수요에 비해 종이의 생산량이 따르지 못하자 조정에서는 불교사찰에 역을 부과해 종이를 저가 매매하여 부족한 물량을 충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불경(佛經)을 만드는 종이를 자급자족하던 사찰은 이제 국가의 중요한 한지 생산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찰에 대한 지나친 지역(紙役)과 저가 매매는 사찰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승려들이 사찰을 떠나게 되는 문제도 야기시켰다.¹⁸⁾ 조선 말기의 제지 수공업은 조지서와 사찰에서 그 맥락을 유지했지만 과도한 지역(紙役)은 생산 의욕을 침체시켜 한지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으며, 고종 19년(1882)에는 관설 제지소로 출발한 조지서가 400여 년 만에 폐지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시대 이래 천 년 이상을 이어져 온 한지는 국가의 중요 수공업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해 왔으나 양란으로 인해 침체를 겪게 되었다. 그 후 개항으로 인하여 서양식 종지와 근대화된 인쇄술이 도입됨에 따라 점차 그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그러나 근래에 우리의 것을 되찾자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지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2020년 5월 한지문화산업센터¹⁹⁾가 개관되어 한지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한지 분야 관련자들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한지의 생산 활성화 및 유통 지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세미나, 콘퍼런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지의 맥을 잇는 다양한 움직임으로 천년을 이어온 한지는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1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종이문화, 신유, 1995, p.12.

19) 한지문화산업센터(www.hanjicenter.kr)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31-9에 소재하며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3) 한지의 종류

우리 선조들의 삶과 함께해 온 한지는 처음에는 특정 계층 위주로 사용되었지만 제지 기술의 발달로 공급이 확대되면서 일반 서민까지도 이용하게 되었다. 한지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종이가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용도에 맞는 크기와 두께로 제작되었다.

한지의 종류는 <표 II-1>에서와 같이 원료, 용도, 색상, 생산지, 크기 및 두께, 품질, 제작 방법, 마무리 방법 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원료에 따른 종류를 살펴보면 벚짚·보릿짚·귀리 등의 단섬유와 닥·마·뽕나무 등의 장섬유를 혼합해 만든 고정지(藁精紙), 닥껍질로 만든 곡지(穀紙), 닥나무만을 원료로 한 강인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닥종이인 저지(楮紙), 등나무를 원료로 만든 등지(藤紙), 마의 속대를 부수어 섞어 만든 마골지(麻骨紙), 대마 껍질로 만든 대마지(大麻紙), 목화로 만든 면지(棉紙), 버드나무를 혼합하여 만든 유목지(柳木紙), 버드나무 잎을 섞어서 만든 유엽지(柳葉紙), 황마를 섞어 만든 황마지(黃麻紙), 소나무의 껍질을 혼합하여 만든 송피지(松皮紙), 화강암의 광물인 운모 가루를 바른 운모지(雲母紙), 울무의 짚으로 만든 의이지(薏苡紙), 갈대의 꽃을 섞어 만든 노화지(蘆花紙), 금박이나 금물 등의 금빛 나는 재료를 발라 만든 금지(金紙), 삼 껍질이나 삼베로 만든 마지(麻紙), 대나무 줄기 내부의 엷은 피막을 사용하여 만든 공정은 까다롭지만 질이 좋은 죽지(竹紙), 가는 털과 같은 이끼를 섞어서 만든 태지(苔紙), 닥나무 껍질의 찌꺼기로 만든 품질이 낮은 피지(皮紙), 산닥나무 껍질로 만든 안피지(雁皮紙), 닥종이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질이 좋아 중국에 수출이 많이 되었던 상지(桑紙, 뽕나무종이) 등이 있다.

용도에 따라서는 불경을 베낄 때 사용한 경지(經紙), 경전을 만들 때 사용한 장경지(藏經紙)²⁰, 절의 시공·불사가 있는 추수기에 집집마다 나누어주는 종

이 주머니를 만들던 권선지(勸善紙), 위패에 쓴 죽은 사람의 이름을 가리는 면지(面紙)가 있었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 문서로 쓰였던 두껍고 질긴 종이인 자문지(咨文紙), 일본과 교섭할 때 외교 문서로 이용되던 서계지(書契紙), 중국 황제에게 보내는 글을 쓰기 위해 만든 주본지(奏本紙), 임금에게 올리는 서류 목록을 적었던 계목지(啓目紙), 논죄(論罪)에 관한 일을 임금께 보고할 때 쓰였던 계사지(啓辭紙), 승지가 임금 앞에서 왕명을 받아 적는 데 사용한 주지(注紙), 임금께 올리는 표문(表文)이나 전문을 쓰기 위해 만들어진 표전지(表箋紙), 새해를 축하하는 뜻으로 궐내에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한 세화지(歲畫紙), 과거 시험 답안지로 쓰였던 시지(試紙), 선자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부채와 종이연의 원료인 선지(扇紙), 저화(楮貨)를 만들 때 사용한 저주지(楮注紙), 서류의 부분을 만들 때 쓰인 부분단지(副本單紙)가 있다. 이와 더불어 비 올 때 갖 위에 쓰던 기름종이인 입모지(笠帽紙), 방바닥에 바르는 기름을 먹인 두꺼운 종이인 장판지(張板紙),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한 지등지(紙燈紙), 문과 창을 바르는 데 쓰인 창호지(窓戶紙), 장지로 만든 두껍고 품질이 좋아 편지지로 쓰였던 간지(簡紙), 겹으로 접어 품속에 넣어 두었다가 시가(詩歌)의 초안이나 휴지 등으로 사용되던 첩지(疊紙), 책 등에 무언가를 표시하려고 붙이는 쪽지인 첩지(籤紙), 제사를 지낼 때 축문을 쓰던 축문지(祝文紙), 담뱃불 등을 붙이는 데 쓰는 얇은 종이인 화지(火紙) 등이 있다.

한편 한지의 사용이 저변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색상의 색지가 등장하였다. 색상에 따라 쪽 염료를 사용하여 감람색으로 물들인 감지(紺紙), 소목으로 붉게 물들인 단목지(丹木紙), 도토리나무로 물들여 주로 금·은니²¹⁾를 사용하여 사경²²⁾하는 데 이용한 상지(橡紙), 홍화로 염색한 도화지(桃花紙), 검푸른

20) 장경지는 광택이 나고 두꺼우며 황색지와 백색지의 두 종류가 있다.

21) 금·은니는 금가루나 은가루를 아교풀에 개어 만든 안료이다. 검은색 또는 어두운 바탕의 종이에 주로 쓰였고 불교 경전이나 제단화를 장식하는 데도 많이 사용되었다.

22) 사경(寫經)은 불사(佛事)의 하나로, 정성껏 불경을 베끼는 일을 말한다. 고인의 명복이나 주변 사람의 복 또는 국가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행해졌다.

〈표 II-1〉 한지의 종류

구분	종류
원료	고정지(藁精紙), 곡지(穀紙), 저지(楮紙), 등지(藤紙), 마골지(麻骨紙), 대마지(大麻紙), 면지(棉紙), 유목지(柳木紙), 유엽지(柳葉紙), 황마지(黃麻紙), 송피지(松皮紙), 운모지(雲母紙), 의이지(薏苡紙), 노화지(蘆花紙), 금지(金紙), 마지(麻紙), 죽지(竹紙), 태지(苔紙), 피지(皮紙), 안피지(雁皮紙), 상지(桑紙) 등
용도	경지(經紙), 장경지(藏經紙), 권선지(勸善紙), 면지(面紙), 자문지(咨文紙), 서계지(書契紙), 주문지(奏本紙), 계목지(啟目紙), 계사지(啓辭紙), 주지(注紙), 표전지(表箋紙), 세화지(歲畫紙), 시지(試紙), 선지(扇紙), 저주지(楮注紙), 부분단지(副本單紙), 입모지(笠帽紙), 장판지(張板紙), 지등지(紙燈紙), 창호지(窓戶紙), 간지(簡紙), 첩지(疊紙), 첩지(籤紙), 축문지(祝文紙), 화지(火紙), 등
색상	감지(紺紙), 단목지(丹木紙), 상지(橡紙), 도화지(桃花紙), 아청초주지(鴉青草注紙), 옥색저주지(玉色楮注紙), 황염초주지(黃染草注紙), 목지(黑紙), 황지(黃紙), 취지(翠紙), 홍저주지(紅楮注紙) 등
생산지	경장지(京壯紙), 경지(慶紙), 백로지(白露紙), 상화지(霜花紙), 각색지(各色紙), 설화지(雪花紙), 진헌표지(進獻表紙), 국용표지(國用表紙) 등
크기 및 두께	대호지(大好紙), 소호지(小好紙), 사괴지(四塊紙), 선익지(蟬翼紙), 장지(壯紙), 후지(厚紙) 등
품질	백면지(白綿紙), 별백지(別白紙), 상지(常紙), 열품백지(劣品白紙), 은면지(銀面紙), 죽청지(竹靑紙), 백추지(白碓紙) 등
제작 방법	분백지(粉白紙), 분주지(粉周紙), 사륙지(紗漉紙), 포목지(布目紙) 등
마무리 방법	도련지(搗練紙), 도침백지(搗砧白紙), 타지(打紙), 동유지(桐油紙), 만년지(萬年紙), 유둔지(油筴紙) 등

물감을 들인 얇은 종이인 아청초주지(鴉靑草注紙), 옥색으로 물들인 옥색저주지(玉色楮注紙), 매자 열매의 황색으로 염색한 황염초주지(黃染草注紙), 검은 물을 들인 묵지(墨紙), 경서나 그 밖의 서적을 만드는 데 쓰인 황벽색으로 물들인 황지(黃紙), 하늘색 물을 들인 취지(翠紙), 붉은색 물을 들인 홍저주지(紅楮注紙) 등이 있다.

생산지에 따라 조선 시대에는 서울의 조지소와 지방에서 생산된 지방지를 구분하였다. 세검정 조지서에서 생산된 경장지(京壯紙), 경상도 경주에서 만들어진 경지(慶紙), 평안도 영변에서 생산되었던 종지로 영변지라고도 불리는 백로지(白露紙), 전라도 순창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광택이 나고 질긴 상화지(霜花紙), 전라도 완주에서 만들어진 완지(莞紙), 충청도 지역의 각색지(各色紙), 강원도 평강에서 만든 눈송이처럼 흰 설화지(雪花紙), 그리고 경상도 지역의 진헌표지(進獻表紙)·국용표지(國用表紙)가 있다.

크기 및 두께에 따라서는 과거 시험을 치를 때나 시권(詩卷)에 사용하는 넓고 길며 다소 거친 대호지(大好紙), 대호지보다 약간 작고 품질이 낮은 소호지(小好紙), 본(本)이 크고 두꺼운 사괴지(四塊紙), 잠자리 날개처럼 매우 얇은 선익지(蟬翼紙), 길이가 3자 8치, 넓이가 2자 9치로 크고 두꺼운 종이인 장지(壯紙), 종이를 여러 겹 붙여 두껍게 만든 후지(厚紙) 등이 있다.

품질에 따라 공물지(貢物紙)로 이용되었던 희고 품질이 좋은 백면지(白綿紙), 매우 뛰어난 품질로 외국에서 한지를 부르던 이름인 별백지(別白紙), 품질이 보통 수준인 상지(常紙), 품질이 나쁜 백지인 열품백지(劣品白紙), 은 빛깔로 매끈하게 만든 은면지(銀綿紙), 얇고 질기며 단단한 닥종이인 죽청지(竹靑紙), 희고 광택이 나는 종지로 중국에 의해 신라 시대에는 계림지, 고려 시대에는 고려지로 불린 백추지(白礎紙) 등이 있다.

제작 방법에 따라 가루를 먹인 분백지(粉白紙), 두루마리 한지로 표면에 쌀 가루를 뿌리고 두들겨 만든 분주지(粉周紙), 종이를 뜯 때 발의 눈을 없애기

위해 비단을 씨워 뜯 사록지(紗漉紙), 종이를 뜯 때 발의 눈을 없애기 위해 포(布)를 씨워 뜯 포목지(布目紙) 등이 있다.

마무리 방법에 따라 조선 시대 각종 문서 등에 사용된 다듬잇들에 다듬어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붓이 잘 움직이도록 만든 도련지(搗鍊紙), 홍두깨에 밀어 다듬질하여 광택을 낸 도침백지(搗砧白紙), 다듬이질을 하여 매끄럽고 광택이 나게 한 타지(打紙), 동유(오동씨 기름)를 도포하여 건조한 한지로 포장용지나 우구(牛具) 등의 제작에 쓰이는 동유지(桐油紙), 칠이나 기름을 먹인 만년지(萬年紙), 비가 올 때 쓰기 위해 닥종이를 이어 붙여 만든 두꺼운 기름종이인 유둔지(油芻紙) 등이 있다.

2) 한지공예의 문화

공예는 실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회화·조각과 같은 순수예술과 구분이 되지만 재료나 기교 등에 의해 미적 효과를 나타내므로 기능적 요소와 미적 감각을 모두 갖추어 예술적 측면에서도, 실용적인 상품으로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그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²³⁾

한국에서 공예에 관한 정의는 1880년대 이래로 꾸준한 변화를 보여 왔지만 기술·기법, 수작업, 실용성, 예술적 가치,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재료와 같은 요소들은 공예의 정의에 정체성을 이루는 것들이다.²⁴⁾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1항에서는 공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23) 안유선, 공예란 무엇인가: 서울공예박물관에게 던지는 질문1, 2017, <https://brunch.co.kr/@bomnoon/2>

2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공예백서, 2014, p.14.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즉 공예는 전문적인 수작업을 통해 실용적·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물품을 만드는 행위나 능력이다.²⁵⁾ 그러나 전문적인 수작업을 통해 실용적·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물품을 만드는 행위로 정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작업이 일정 부분 기계로 대체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공예를 수작업에만 한정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물론 대량생산된 실용품이나 실용성이 배제된 예술작품을 공예라고 할 수는 없다. 공예는 ‘수공’과 ‘쓰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한지공예문화는 한지를 이용한 공예와 연관된 문화를 지칭한다.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한지공예의 기법, 관련된 산업과 유·무형의 콘텐츠 등이 모두 포함된다. 문화적으로 볼 때 한지공예는 종이라는 재료의 특성이나 제작 과정상, ‘지속가능성’이라는 현대의 중요한 가치와 부합된다. 종이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친숙한 소재이고, 생활필수품으로서 문화 예술의 발달과 함께 실용성이 강조되는 공예품의 재료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한지 공예품은 서민층 즉 민중의 손을 거쳐 일상생활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민예품이기도 하다. 생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한지공예는 오랜 세월이 걸쳐 시대의 생활 관습이나 환경에 맞춰 독특한 생활용품으로 다듬어지면서 다양한 기법으로 점차 발달하게 되었다.²⁶⁾ 현재 남아 있는 유물로 미루어볼 때 조선 시대 중엽에서 구한말까지의 시기에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지 공예품은 전란으로 소실이 되거나 각종 의식에 사용되던 기물은 의식이 끝난 뒤 불태워지는 풍습으로 유물로 많이 남

25)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고서, 생활 속 문화융성 실현과 또 하나의 한류를 위한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 문화체육관광부, 2003, p.2.

26) 김영호, 한지공예의 변천 과정 및 그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11.

아 있지 못하다. 또한 근대 이후 전통 한지와 공예품에 대한 수요의 급감에 따라 일부 문화적인 단절도 발생하였다.

3) 한지공예의 종류

오늘날 한지공예의 종류는 지승공예·전지공예·지호공예로 분류²⁷⁾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승공예와 지호공예로 분류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전지공예와 지장공예의 용어가 뒤섞이며 연구자에 따라 전통한지공예와 현대한지공예로 대별하기도 한다.²⁸⁾ 본 연구에서는 한지공예를 제작기법에 따라 지승공예, 지호공예, 지장공예로 크게 나누고 지호공예에는 닥종이 인형을 포함하며, 지장공예에 전지공예를 포괄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지승공예(紙繩工藝)

지승(紙繩)의 어원은 종이라는 뜻의 지(紙)에 끈다는 뜻을 지닌 승(繩)이 합쳐진 것으로 우리말로는 노역개라고 한다. 즉 지승은 종이를 꼬아 만든 노끈이며 별칭으로 지노(紙蘆), 지념(紙捻), 노나끈, 노역개²⁹⁾ 등으로도 불린다.

지승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연산군 5년(1499) 이극균이 올린 상소³⁰⁾에 엄심갑³¹⁾의 제작 방법을 묘사할 때이며, 선조 31년

27) 김영호, 한지공예의 변천 과정 및 그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p.12-14; 남상교, 지공예품의 동향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사범대학논문집, 6, 1989, pp.173-206.

28) 임영주·상기호, 종이공예문화, 대원사, 2011, p.40.

29) 한규성, 조선시대 말기 지승에 대한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p.6.

30) 한국고전종합DB, 燕山君日記 35卷, 燕山5年 10月 23日.

一, 本道軍士冬夏不解甲, 甲盡破. 臣到碧團鎮, 見軍士有着掩心者, 取來問之, 云: 以紙漬鹽水曝乾, 與布絲交雜縫合, 又以黑絲布(裏)〔裏〕外, 白布爲內, 間以紙繩穿結若頭釘然, 矢不易入, 射弓亦便, 兼可禦敵, 而所造之功, 不如造甲之難. 臣意, 以京外久藏簿書休紙, 多輸本道, 令節度使製造, 赴防軍士中有武才人, 宜先分給何如.

31) 엄심갑은 종이와 천으로 조끼 모양을 만들어 가슴과 등을 방호할 수 있도록 만든 갑옷이다.

(1598) 지의(紙衣)에서도 지승반결(紙繩盤結)³²⁾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다.

지승공예는 종이를 가까이하는 선비나 양반 그리고 노인들이 소일삼아 만들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는 데 종이의 자투리를 이용하거나 고문서, 고서, 서간지 등을 이용하여 특별한 기술이나 도구가 없이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었다.³³⁾ 또한 종이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던 사찰의 승려들이나 서민들에 의해서도 많이 만들어졌다.

지승 공예품의 제작 방법은 한지를 길고 가늘게 잘라 엄지와 검지로 비벼 가늘게 꼰 외울은 씨실이 되고, 외울 두 가닥으로 꼰 겹울은 날실이 된다. 촘촘하게 혹은 성글게 짜고 무늬를 넣기도 해서 기물을 만든다. 지승 공예품은 간결하고 단아하며 화려하지 않아 소박하고 운치가 있다. 완성된 기물 위에 감물 염색을 하거나 식물성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옷칠, 황칠을 하여 내구력과 방수성을 높여 사용한다.

대표적인 지승 공예품으로는 돌상, 동고리, 호리병(그림Ⅱ-3), 바구니, 요강, 자리, 안경집, 망건통(그림Ⅱ-4), 자라병, 미투리, 신골, 허리띠, 반질고리, 망태기, 지갑 등 주로 일상의 생활용품들이다. 도산 안창호(1878-1938) 선생이 수감 중 직접 만든 지승 공예품³⁴⁾이나 독립운동가들이 지승 노 속에 기밀문서를 적어 전달하기도 했다는 것으로 보아 지승공예는 독립을 염원했던 우리 선조들의 나라를 향한 마음과도 함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지승 공예품은 재료의 특성상, 금속이나 도자기 등 다른 공예품과는 달리 마감 칠을 한 것 외에는 보존처리가 되지 않아 부패하거나 소실되어 현재 전해 오는 것은 주로 조선 말기의 유물로 국한되고 있다.

32) 한국고전종합DB, 宣祖實錄, 宣祖31年 1月 20日.

以紙作衣，可以禦丸乎 遊擊曰：甚好矣。因出示曾造紙甲曰：依此樣造着，則大小丸皆不得入矣。濡水而衣，則禦丸尤妙矣。作衣之法，先以紙厚鋪，以三升布，着內外，以紙繩盤結，如榛子大，或如栗子大，簇簇相襯而穿之以繩末，結之於衣內。若以雪綿子，間紙鋪之，則尤妙矣。

33) 추원교, 우리 공예문화, 예경, 2003, p.205.

34) 도산 안창호 옥중제작 발우·바구니 80년 만에 첫 공개, 연합뉴스, 2012. 11. 4. <https://www.yna.co.kr/view/AKR20131104084100004>



<그림 II-3> 지승 호리병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II-4> 지승 망건통
출처: 유서경 작품

(2) 지호공예(紙戶工藝)

지호공예는 닥종이나 폐지를 잘게 찢어서 물에 불려 삶아 종이를 풀어지게 한 다음 물기를 제거하고 찢다. 밀가루 풀이나 찹쌀풀을 섞은 다음 찞어서 점토처럼 만든 후 이것으로 기형(器型)을 하는 기법이다.³⁵⁾ 닥종이 이외에 창호지로 쓰다 버린 폐지 혹은 글씨 연습을 하고 남은 한지나 파지 등을 재료로 활용한 지호공예는 쓰고 남은 종이를 마지막까지 재활용하려는 우리 선조의 지혜가 녹아 있다.³⁶⁾

지호 공예품 제작은 폐지를 갯물에 담근 후 절구통에 찧고 삭힌 찹쌀풀, 밀가루 풀을 넣어 떡시루에 찢 다음, 절구질하여 혼합해 틀에 종이 죽을 발라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건조시킨 후 틀과 분리시킨다. 형태의 변형을 막기 위해 삼베를 바르고 그 위에 종이 죽을 발라 다시 건조시킨다. 여기에 들기름·콩기름을 먹이거나 옷칠을 하여 미적 완성과 함께 항균 효과를 얻는다. 옷칠을 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바탕에 색지를 바르고 화려한 무늬를 장식하여 심미성을 높이면 완성된다.³⁷⁾

과거에 대부분의 지호 공예품은 그릇, 합,³⁸⁾ 합지박(그림Ⅱ-5), 표주박, 과반, 동고리,³⁹⁾ 대야, 독, 베개(그림Ⅱ-6) 등을 만들어 사용했다. 지호공예 기법으로 만든 독은 산간 지방에서 곡식을 갈무리할 때 많이 활용되었으며, 물을 떠먹는 용도의 그릇은 조롱박이나 둥근 박을 반으로 쪼개어 놓은 형태의 작은 표주박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또한 종이로 된 탈이나 인형도 지호기법으로 만들었다. 닥종이 인형은 지호공예 기법을 응용한 것으로 한지에 풀을 발라 잘게

35) 김리완, 전통한지공예기법을 활용한 지호공예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26.

36) 차미경, 한지공예를 활용한 아동미술교육의 발전적 적용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20.

37) 조승환, 전통 지호공예의 역사적 고찰에 따른 현대 작품의 조형성 접근,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24.

38) 합은 음식을 담거나 보관하는 그릇의 하나로 뚜껑이 있다.

39) 동고리는 키버들로 둥글납작하게 만든 작은 고리이다.

찢어 붙여 만든다. 현대에는 제품 표면에 색지를 바르는 대신 폐지를 물에 불리는 과정에서 염색한 닥풀을 이용한 개성적인 색감도 등장하고 있다.



<그림 II-5> 지호 함지박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II-6> 호랑이 베개

출처: 김리완 작품

(3) 지장공예(紙裝工藝)

여러 가지 색지를 오려 무늬를 만들고 기물에 장식하는 지장공예에는 두 가지 제작기법이 있다. 첫 번째는 종이를 여러 겹 바른 두터운 종이인 후지(厚紙)로 만들어 그릇 형태를 이루고 그 표면에 기름을 칠하거나 옷칠을 해 완성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종이를 만들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작은 물건인 찻지, 함, 반진고리, 빗집을 만드는 데 유용하였다. 두 번째는 나무로 골격을 만든 다음 그 안팎에 종이를 두세 겹 바르는 목골지장기법(木骨紙裝技法)으로 장(그림Ⅱ-7), 농, 함(그림Ⅱ-8) 등 비교적 큰 가구를 만드는 데 이용되었다. 즉 목재로 골격을 만들어 그 안팎에 종이를 여러 겹 바르고 표면에 무늬로 치장하였다. 서민층은 값싼 목재와 폐지를 이용했지만 부유층에서는 좋은 목재로 골격을 짜고 질 좋은 소지와 당지(唐紙)를 바른 화려한 기물을 애용하였다.

한편 만들어진 기물에 다양한 색지로 여러 가지 화려한 무늬를 오려 붙여 장식한 공예품을 전지공예라고 하며, 옷칠을 하거나 기름을 먹여 만드는 것을 지도공예라고 한다.⁴⁰⁾ 오색 전지공예의 역사는 규방 문화가 성행하기 시작한 조선 시대 중기부터로 추정되며, 규방 공예품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지함(紙函)이나 지상(紙箱)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⁴¹⁾

지장공예에 사용되는 색지는 천연염료로 물들인 오색을 기본으로 하여 문양을 그린 후 가위나 조각칼로 오려 붙여서 장식을 한다. 문양 기법에 따라 양각 기법, 투각 기법, 음각 기법으로 나뉜다.⁴²⁾ 색지나 문양을 바를 때 풀은 반드시 밀가루 풀이나 쌀풀을 사용하였고 내구성과 내습성을 위해 콩기름, 들기름, 잣기름, 동백기름 등 식물성 기름을 먹이거나 옷칠을 하였다. 지장공예는 다른 공예품과는 달리 화려한 색채와 유려한 형태가 잘 조화되어 궁중과 사대

40) 임영주·상기호, 종이 공예 문화, 대원사, 2011, p.69.

41) 전철, 한지공예 기법의 원류 고찰과 한지공예의 분화, 펄프종이기술, 43(4), 2011, pp.11-22.

42) 심화숙, 전통한지공예, 우리출판사, 2005, p.44.

부 그리고 일반 서민층에 이르는 우리 조상들의 독특한 미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25000-00-02

<그림 II-7> 지장 이층장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II-8> 지장서류함

출처: 윤서형 작품

2. 한지공예문화산업

문화는 일상적인 삶에서 비롯되는 가치 창출의 기반으로 창조와 생산의 근원이다. 21세기에 들어 문화는 고부가가치의 창조적 상품(creative product)을 창출하는 교두보가 되고 있다.⁴³⁾

문화산업은 상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일반 산업과 유사하나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문화가 내재되어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화상품은 한 나라의 생활방식 즉 정신, 태도, 가치, 규범, 일상 등이 함축되어 정체성을 표현한다. 따라서 문화산업은 한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문화 정체성은 국가 브랜드 파워를 증대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며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가치를 창출한다.⁴⁴⁾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산업 정책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화산업의 일환으로 공예문화산업은 미적·예술적 가치, 실생활의 기능적 가치를 고루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인 산업 분야이며,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과 전통을 표현해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다.⁴⁵⁾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⁴⁶⁾은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공예문화산업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

43)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 연감 2009, 2010, p.8.

44) 김영순,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2014, pp.19-20.

45) 정건용, 공예문화산업 지원정책 국내외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 5개국과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1), 2011, p.585.

46)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은 법률 제13299호로 2015년 5월 18일에 제정되고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함)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은 정책적으로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공예문화산업을 예술적·전통적 특성에 기반하는 산업적 경쟁력을 갖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한지공예문화산업은 예술적·산업적 특징을 지니며 한지라는 특성화된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전통성을 표출하여 가공·생산·유통 및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⁴⁷⁾으로 이행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지공예문화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한지공예 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는 실용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재화와 서비스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하겠다.

3. 한지공예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는 문화(culture)와 콘텐츠(contents)의 합성어로 콘텐츠가 유·무형의 내용물을 일컫는 것이라면, 문화콘텐츠는 인간에 의한 문화의 활용을 전제로 하는 문화적인 의미를 지닌 콘텐츠로 개념화된다.⁴⁸⁾

1999년에 제정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⁴⁹⁾ 제2조 2항에 의하면 문화콘텐츠는

47) 김옥영, 전통한지를 매체로 한 한지공예 기물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 연구: 전지공예와 지승공예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2.

48) 유제상, 문화콘텐츠학 강의, 컨텐츠하우스, 2009, p.30.

4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법률 제17584호로 1999년 2월 8일에 제정되고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화적 요소가 체화(體化)된 콘텐츠를 의미하며 여기서 문화적 요소는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을 지칭한다. 또한 이들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문화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콘텐츠의 법적인 개념 정의가 학계와 산업계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온전한 분류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지만⁵⁰⁾ 콘텐츠라는 용어 앞에 ‘문화’를 붙임으로써 문화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과 문화산업으로의 제도적 길을 마련해 놓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토대로 문화콘텐츠의 영역을 대중문화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디자인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생활문화콘텐츠, 전시문화콘텐츠 등으로 재정리해보았다(표 II-2).

<표 II-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토대로 본 문화콘텐츠의 영역

구 분	범 위
대중문화콘텐츠	영화·비디오물 관련/ 음악·게임 관련/ 출판·인쇄·정기간행물 관련/ 방송영상물 관련/ 대중문화예술 관련/ 광고·공연 관련/
공공문화콘텐츠	문화재 관련/ 공공기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디자인문화콘텐츠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관련/ 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미술품·공예품 관련
디지털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사용자제작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관련/ 모바일콘텐츠 관련
생활문화콘텐츠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 활용의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관련/ 에듀테인먼트 관련
전시문화콘텐츠	문화상품 대상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관련

출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내용을 토대로 영역을 구분해서 본 연구자가 재정리함

50) 이종훈, 창의적 융섭으로서의 문화콘텐츠,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pp.27-29.

21세기는 문화콘텐츠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의 시대에 문화콘텐츠의 가치는 전승과 보존의 당위성을 넘어 미래형 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⁵¹⁾

특히 한지공예에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의 문화적 요소가 체화(體化)된 한지공예문화콘텐츠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지역적 특징을 보여주는 소재 산업이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 및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표 II-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한지공예문화콘텐츠를 장식용품, 소품, 생활용품, 공공콘텐츠, 에듀테인먼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영역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여기서 장식용품 영역은 실내에서 장식성이 강한 용품을 의미하고, 소품 영역은 액세서리 등과 같이 소지하고 이동이 가능한 용품을 뜻하며, 생활용품 영역은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사용이 이루어지는 용품을 말한다. 공공콘텐츠 영역은 공공을 위한 전시나 프로그램 등을 일컬으며,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은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뜻하고, 디지털콘텐츠 영역은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자료나 정보를 의미한다.

51) 허보윤, 공예문화 중장기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pp.36-38.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논문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99년을 기점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각기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물들을 자료로 수집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분석 범위로 한정하고 2021년 9월 1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국회도서관 사이트에서 ‘한지공예’, ‘전통한지공예’를 키워드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또한 검색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가운데 ‘한지공예’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제목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한지를 이용하는 공예와 연관된 기법, 관련된 산업과 유·무형의 콘텐츠 등 한지공예문화의 요소가 들어있는 연구물도 자료로 수집해 최종적으로 학위논문 80편과 학술지 논문 14편의 총 94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논문에서는 한지공예문화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체계 분석, 한지공예문화의 계승 측면에서 한지공예기법 분석, 진흥 측면에서 한지공예문화산업 분석 그리고 가치 구현 측면에서 한지공예문화콘텐츠 분석을 시행해 각각에서 해당 연구물의 편수를 집계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한지공예문화 연구 체제에 따른 분석은 총체적으로 논문의 발표 연도, 발표지 유형, 연구 대상, 연구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발표지 유형은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학술지 논문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대상은 인적 대상, 물적 대상으로 분류한 후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인적 대상은 유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노인·외국인·전 연령으로, 물적 대상은 재화와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연구 방법은 내용분석, 면접조사, 문헌고찰, 사례조사, 웹 개발, 질문지 조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연도별 한지공예문화에 대한 연구 동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발표지 유형, 연구 대상, 연구 방법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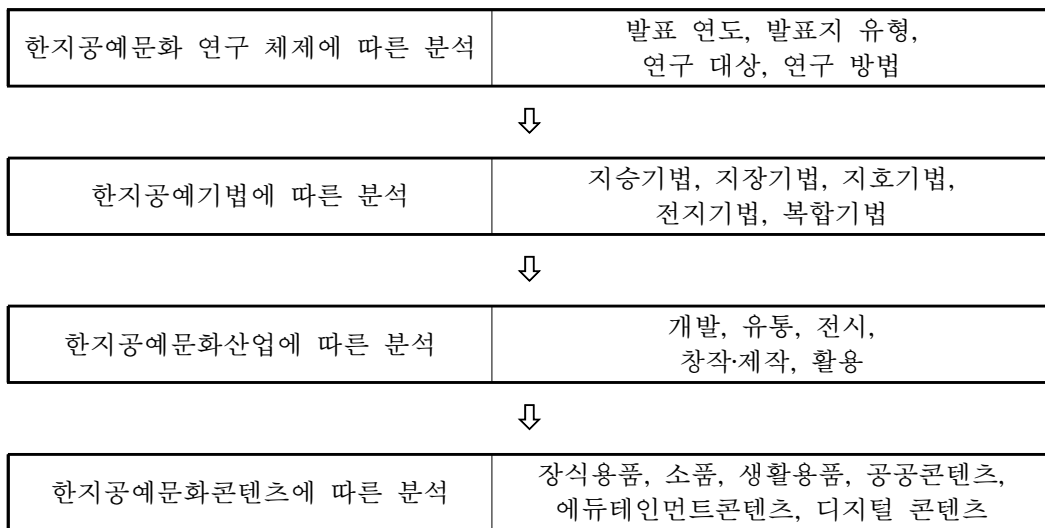
둘째, 한지공예기법에 따른 분석은 지승기법(紙繩技法), 지장기법(紙裝技法), 지호기법(紙戶技法), 전지기법(剪紙技法), 복합기법(複合技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지승기법은 종이 노끈으로 엮어 만드는 방법이며, 지장기법은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그 안팎에 종이를 두세 겹 바르는 방법이다. 지호기법은 종이를 잘게 찢어 물에 불린 뒤 물과 섞어 일정한 틀에 부어 넣거나 덧붙여 이겨 만드는 방법이고, 전지기법은 만들어진 기물에 다양한 색지로 여러 가지 화려한 무늬를 오려 붙이는 방법이다. 복합기법은 2가지 이상의 기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다. 또한 한지공예기법별로 연구의 발표 연도, 발표지 유형, 연구 대상, 연구 방법을 분석하였다.

셋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의 제2조 3항 공예문화산업의 정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지공예문화산업을 개발, 유통, 전시, 창작·제작, 활용의 분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여기서 개발 분야는 교육프로그램, 상품, 스마트콘텐츠 등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유통 분야는 공예품의 유통과 관련된 연구이며, 전시 분야는 공모전과 유물의 전시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창작·제작 분야는 공예품 제작과 작품 창작에 관한 연구이며, 활용 분야는 한지공예가 적용되는 콘텐츠 활용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또한 한지공예문

화산업별로 연구의 발표 연도, 발표지 유형, 연구 대상, 연구 방법, 한지공예기법을 분석하였다.

넷째, 한지공예문화콘텐츠는 장식용품, 소품, 생활용품, 공공콘텐츠, 에듀테인먼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영역으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여기서 장식용품 영역은 실내에서 장식성이 강한 용품, 소품 영역은 액세서리 등과 같이 소지하고 이동이 가능한 용품, 생활용품 영역은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사용이 이루어지는 용품을 말한다. 공공콘텐츠 영역은 공공을 위한 전시나 프로그램 등을 일컬으며,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은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뜻하고, 디지털콘텐츠 영역은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자료나 정보를 의미한다. 또한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로 연구의 발표 연도, 발표지 유형, 연구 대상, 연구 방법, 한지공예기법, 한지공예문화산업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한지공예문화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 흐름을 정리하면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한지공예문화 연구동향의 분석 흐름도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한지공예문화 연구 체제에 따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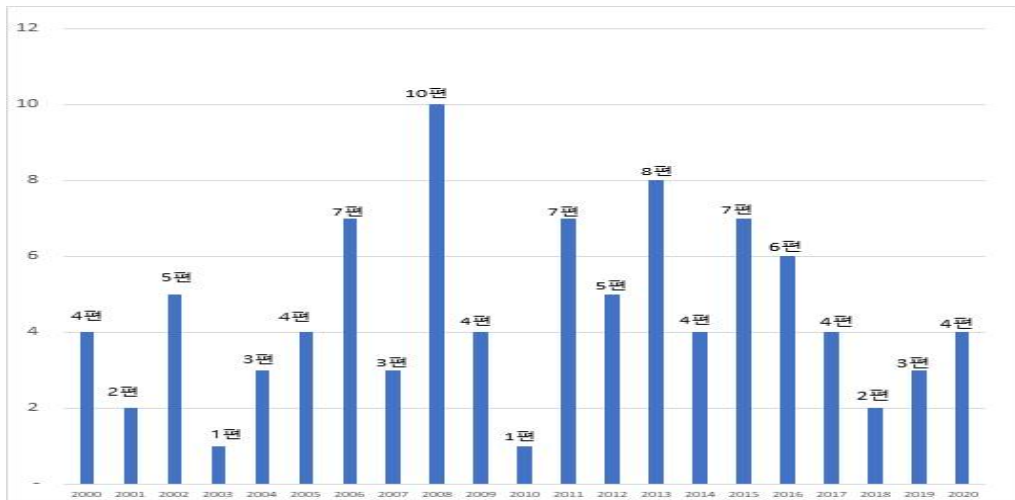
1) 한지공예문화 연구 체제의 총체적 분석

한지공예문화 연구 체제의 총체적 분석은 발표 연도, 발표지 유형, 연구 대상, 연구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발표 연도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 연도별 논문 편수를 <그림 IV-1>에서 살펴보면 2006년부터 한지공예문화 관련 연구물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 가장 많았으며 2017년 이후 연구가 다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8년에 많은 논문이 발표된 것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미학적,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자긍심을 길러 전통 미술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도록 명시한 2007년 7차 개정 교육과정⁵²⁾과 연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2008년에 발표된 논문이 10편으로 가장 많았고 2013년에 8편, 2006년·2011년·2015년에 각각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2016년에 6편, 2002년·2012년에 각각 5편, 2000년·2005년·2009년·2014년·2017년·2020년에 각각 4편의 연구물이 발표되었다. 2004년·2007년·2019년에는 각각 3편의 연구물이 나왔으며 2001년·2018년에는 각각 2편, 2003년·2010년에는 각각 1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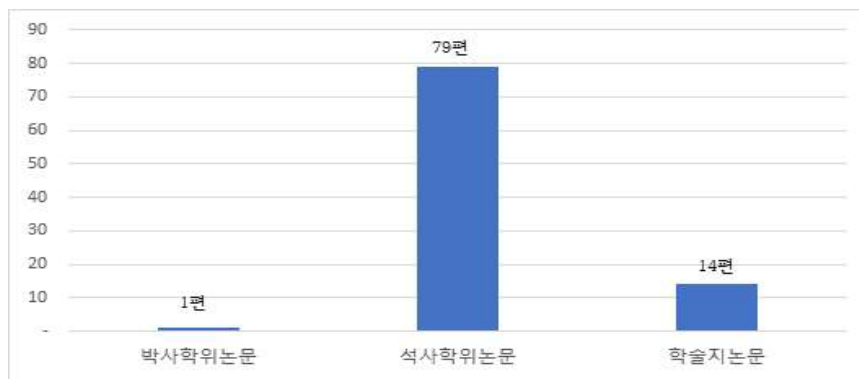
52)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www.ncic.go.kr>



〈그림 IV-1〉 발표 연도별 논문 편수

(2) 발표지 유형

발표지 유형별로는 〈그림 IV-2〉에서와 같이 연구물 총 94편 가운데 학술지 논문 14편, 학위논문 80편이었다. 이 가운데 학위논문은 석사학위논문 79편, 박사학위논문 1편으로, 석사학위논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IV-2〉 발표지 유형별 논문 편수

(3)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인적 대상과 물적 대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별 논문 편수는 <그림 IV-3>과 같이 인적 대상을 바탕으로 한 논문이 41편, 물적 대상으로 이루어진 논문이 53편으로 물적 대상을 연구한 논문의 수가 좀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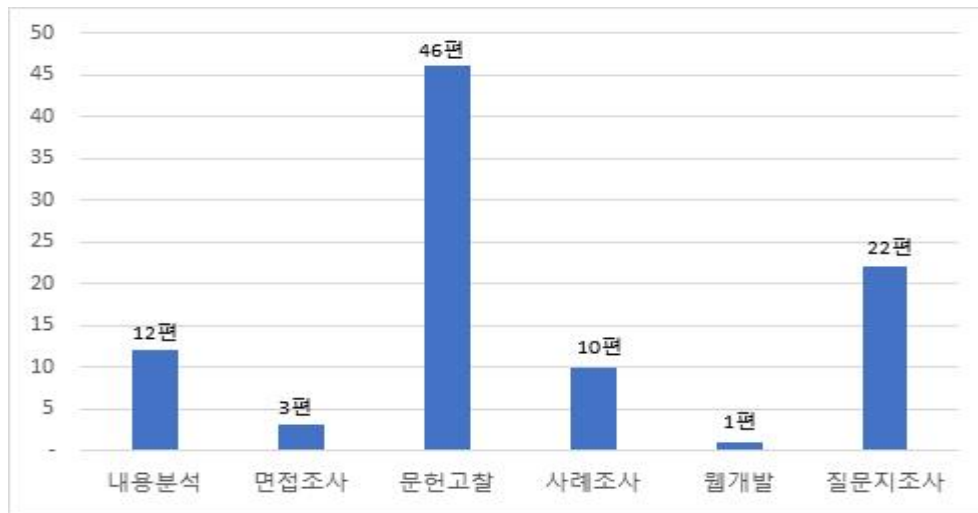


<그림 IV-3> 연구 대상별 논문 편수

(4) 연구 방법

연구 방법별로 논문 편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용분석, 면접조사, 문헌고찰, 사례조사, 웹 개발, 질문지 조사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그림 IV-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 방법 가운데 문헌고찰이 46편, 질문지 조사가 22편, 내용분석이 12편, 사례조사가 10편, 면접조사가 3편, 웹 개발이 1편이었다. 이로 볼 때 총 94편의 논문 중 기존의 연구 내용이나 사료를 바탕으로 문헌고찰을 실시한

방법이 가장 많은 반면 면접조사나 웹 개발을 시도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4> 연구 방법별 논문 편수

2) 연도별 세부적 분석

연도별로 한지공예문화에 대한 연구 동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발표지 유형, 연구 대상, 연구 방법을 분석하였다.

(1) 연도별 발표지 유형

<표 IV-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한지공예문화 관련 박사학위논문은 2017년의 1편이 유일하다. 석사학위논문은 2008년에 9편, 2006년에 7편, 2011년·2013년·2015년에 각각 6편, 2002년·2012년에 각각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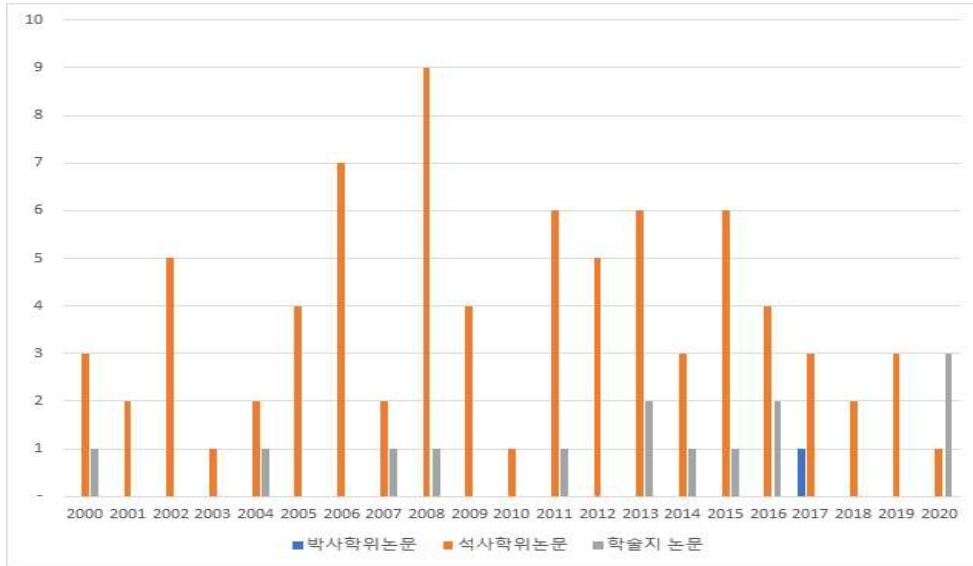
편, 2005년·2009년·2016년에 각각 4편, 2000년·2014년·2017년·2019년에 각각 3편, 2001년·2004년·2007년·2018년에 각각 2편, 2003년·2010년·2020년에 각각 1편의 연구물이 발표되었다.

학술지 논문은 2000년·2004년·2007년·2008년·2011년·2014년·2015년에 각각 1편이 발표되었고 2013년·2016년에 각각 2편, 2020년에 3편의 연구물이 나왔다.

<표 IV-1> 연도별 발표지 유형

구분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소계
2000년	-	3	1	4
2001년	-	2	-	2
2002년	-	5	-	5
2003년	-	1	-	1
2004년	-	2	1	3
2005년	-	4	-	4
2006년	-	7	-	7
2007년	-	2	1	3
2008년	-	9	1	10
2009년	-	4	-	4
2010년	-	1	-	1
2011년	-	6	1	7
2012년	-	5	-	5
2013년	-	6	2	8
2014년	-	3	1	4
2015년	-	6	1	7
2016년	-	4	2	6
2017년	1	3	-	4
2018년	-	2	-	2
2019년	-	3	-	3
2020년	-	1	3	4
합계	1	79	14	94

연도별 발표지 유형의 동향은 <그림 IV-5>와 같다. 석사학위논문은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물이 발표된 반면 학술지 논문은 2013년 이후에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IV-5> 연도별 발표지 유형 동향

(2) 연도별 연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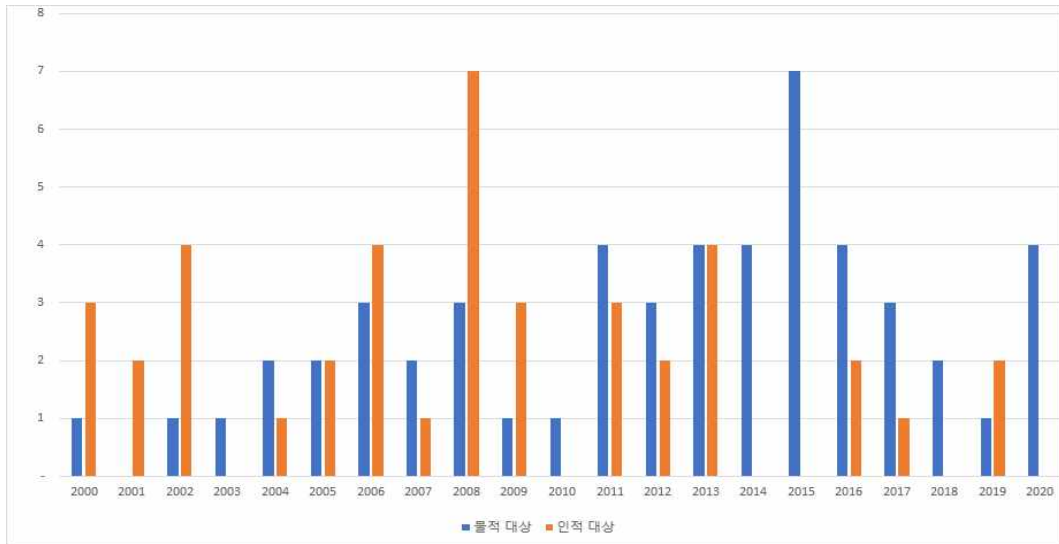
<표 IV-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도별 인적 연구 대상의 논문 편수는 2008년이 7편으로 가장 많았고, 2002년·2006년·2013년에 각각 4편, 2000년·2009년·2011년에 각각 3편, 2001년·2005년·2012년·2016년·2019년에 각각 2편, 2004년·2007년·2017년에 각각 1편의 연구물이 발표되었다. 반면 2003년·2010년·2014년·2015년·2018년·2020년에는 인적 연구 대상에 대한 논문이 없었다.

한편 연도별 물적 연구 대상의 논문 편수는 2015년에 7편이었고 2011년·2013년·2014년·2016년·2020년에 각각 4편, 2006년·2008년·2012년·2017년에 각각 3편, 2004년·2005년·2007년·2018년에 각각 2편, 2000년·2002년·2003년·2009년·2010년·2019년에 각각 1편이었다. 반면 2001년에는 물적 대상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발표되지 않았다.

〈표 IV-2〉 연도별 연구 대상

구분	인적 대상	물적 대상	소계
2000년	3	1	4
2001년	2	-	2
2002년	4	1	5
2003년	-	1	1
2004년	1	2	3
2005년	2	2	4
2006년	4	3	7
2007년	1	2	3
2008년	7	3	10
2009년	3	1	4
2010년	-	1	1
2011년	3	4	7
2012년	2	3	5
2013년	4	4	8
2014년	-	4	4
2015년	-	7	7
2016년	2	4	6
2017년	1	3	4
2018년	-	2	2
2019년	2	1	3
2020년	-	4	4
합계	41	53	94

연도별 연구 대상의 동향은 <그림 IV-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적 대상은 2008년에 7편으로 가장 많았고, 물적 대상은 2015년에 7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림 IV-6> 연도별 연구 대상 동향

다음으로는 연도별로 인적 연구 대상과 물적 연구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인적 대상은 유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노인·외국인·전 연령으로, 물적 대상은 재화와 서비스로 분류하였다.

① 연도별 인적 연구 대상

인적 연구 대상을 세분화하여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전체적으로 연도별 인적 연구 대상은 중학생이 20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등학생이 12편이었다. 반면 다른 인적 연구 대상의 논문은 미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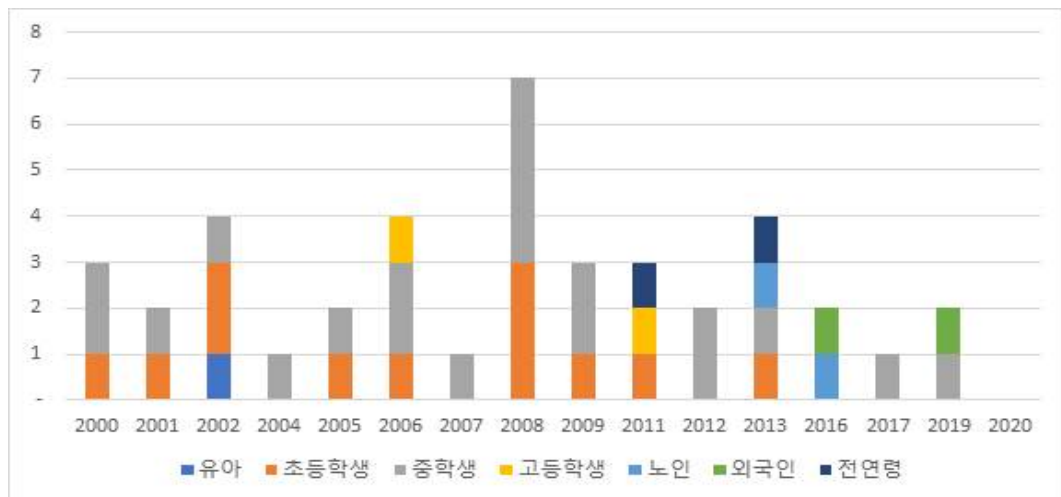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2000년에 초등학생 1편과 중학생 2편으로 총 3편, 2001년에 초등학생 1편과 중학생 1편으로 총 2편, 2004년에 중학생 1편만이 있으며 2005년에 초등학생 1편과 중학생 1편으로 총 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2006년에 초등학생 1편, 중학생 2편, 고등학생 1편으로 총 4편, 2007년에 중학생 1편만 발표되었고, 2008년에 초등학생 3편과 중학생 4편으로 총 7편, 2009년에 초등학생 1편과 중학생 2편으로 총 3편, 2011년에 초등학생 1편, 고등학생 1편, 전 연령 1편으로 총 3편의 연구물이 나왔다. 2012년에 중학생 2편, 2013년에 초등학생·중학생·노인·전 연령의 논문이 각각 1편 발표되었다. 2016년에 노인

<표Ⅳ-3> 연도별 인적 연구 대상

구분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노인	외국인	전연령	소계
2000년	-	1	2	-	-	-	-	3
2001년	-	1	1	-	-	-	-	2
2002년	1	2	1	-	-	-	-	4
2003년	-	-	-	-	-	-	-	-
2004년	-	-	1	-	-	-	-	1
2005년	-	1	1	-	-	-	-	2
2006년	-	1	2	1	-	-	-	4
2007년	-	-	1	-	-	-	-	1
2008년	-	3	4	-	-	-	-	7
2009년	-	1	2	-	-	-	-	3
2010년	-	-	-	-	-	-	-	-
2011년	-	1	-	1	-	-	1	3
2012년	-	-	2	-	-	-	-	2
2013년	-	1	1	-	1	-	1	4
2014년	-	-	-	-	-	-	-	-
2015년	-	-	-	-	-	-	-	-
2016년	-	-	-	-	1	1	-	2
2017년	-	-	1	-	-	-	-	1
2018년	-	-	-	-	-	-	-	-
2019년	-	-	1	-	-	1	-	2
2020년	-	-	-	-	-	-	-	-
합계	1	12	20	2	2	2	2	41

과 외국인 대상의 논문이 각각 1편, 2017년에 중학생 1편, 2019년에 중학생 1편과 외국인 1편으로 총 2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림 IV-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인적 연구 대상의 동향은 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3년 이후에는 외국인과 노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7> 연도별 인적 연구 대상 동향

② 연도별 물적 연구 대상

연도별 물적 연구 대상은 재화와 서비스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총 53편의 논문 가운데 서비스는 11편, 재화는 42편이었다(표 IV-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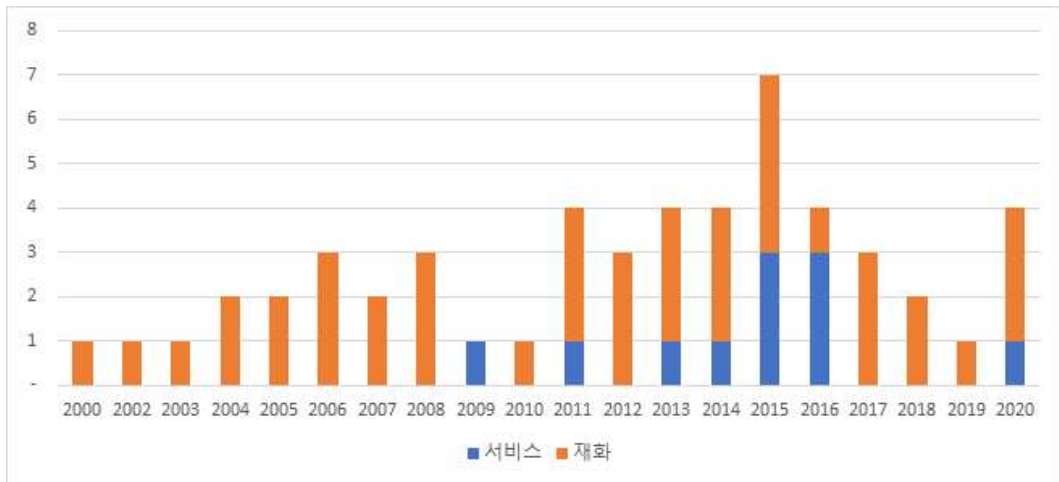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2008년 이전까지는 물적 연구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논문 발표가 없었으나 2009년·2011년·2013년·2014년·2020년에 각각 1편, 2015년·2016년에 각각 3편의 연구물이 발표되었다. 반면 재화는 2015년에 4편, 2006년·2008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7년·2020년에 각각 3

편, 2004년·2005년·2007년·2018년에 각각 2편, 2000년·2002년·2003년·2010년·2016년·2019년에 각각 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표 IV-4> 연도별 물적 연구 대상

구분	서비스	재화	소계
2000년	-	1	1
2001년	-	-	-
2002년	-	1	1
2003년	-	1	1
2004년	-	2	2
2005년	-	2	2
2006년	-	3	3
2007년	-	2	2
2008년	-	3	3
2009년	1	-	1
2010년	-	1	1
2011년	1	3	4
2012년	-	3	3
2013년	1	3	4
2014년	1	3	4
2015년	3	4	7
2016년	3	1	4
2017년	-	3	3
2018년	-	2	2
2019년	-	1	1
2020년	1	3	4
합계	11	42	53

연도별 물적 연구 대상의 동향은 <그림 IV-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화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림 IV-8> 연도별 물적 연구 대상 동향

(3) 연도별 연구 방법

연도별 연구 방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 IV-5>와 같이 내용분석, 면접조사, 문헌고찰, 사례조사, 웹 개발, 질문지 조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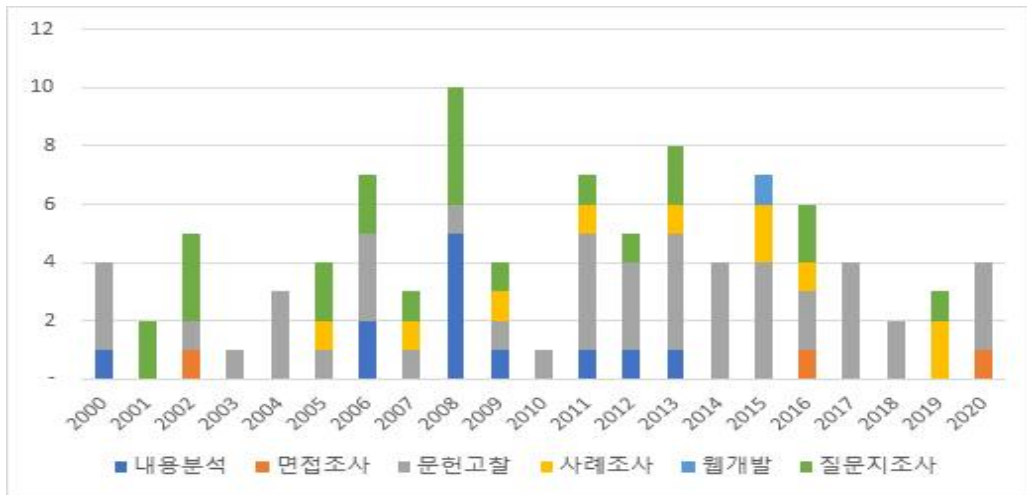
내용분석은 2008년에 5편, 2006년에 2편, 2000년·2009년·2011년·2012년·2013년에 각각 1편으로 총 12편이었고, 면접조사는 2001년·2016년·2020년에 각각 1편이 발표되었다. 문헌고찰은 2011년·2013년·2014년·2015년·2017년에 각각 4편, 2000년·2004년·2006년·2012년·2020년에 각각 3편, 2016년·2018년에 각각 2편, 2002년·2003년·2005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에 각각 1편으로 총 46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사례조사는 2015

년·2019년에 각각 2편, 2005년·2007년·2009년·2011년·2013년·2016년에 각각 1편으로 총 10편의 논문이 나왔고 웹 개발은 2015년에 1편만이 발표되었다. 질문지 조사는 2008년에 4편, 2002년에 3편, 2001년·2005년·2006년·2013년·2016년에 각각 2편, 2007년·2009년·2011년·2012년·2019년에 각각 1편으로 총 22편의 연구물이 발표되었다.

〈표 IV-5〉 연도별 연구 방법

구분	내용 분석	면접 조사	문헌 고찰	사례 조사	웹 개발	질문지 조사	소계
2000년	1	-	3	-	-	-	4
2001년	-	-	-	-	-	2	2
2002년	-	1	1	-	-	3	5
2003년	-	-	1	-	-	-	1
2004년	-	-	3	-	-	-	3
2005년	-	-	1	1	-	2	4
2006년	2	-	3	-	-	2	7
2007년	-	-	1	1	-	1	3
2008년	5	-	1	-	-	4	10
2009년	1	-	1	1	-	1	4
2010년	-	-	1	-	-	-	1
2011년	1	-	4	1	-	1	7
2012년	1	-	3	-	-	1	5
2013년	1	-	4	1	-	2	8
2014년	-	-	4	-	-	-	4
2015년	-	-	4	2	1	-	7
2016년	-	1	2	1	-	2	6
2017년	-	-	4	-	-	-	4
2018년	-	-	2	-	-	-	2
2019년	-	-	-	2	-	1	3
2020년	-	1	3	-	-	-	4
합계	12	3	46	10	1	22	94

연도별 연구 방법의 동향은 <그림 IV-9>에서와 같이 전 기간에 걸쳐 문헌고찰 연구가 가장 많으나 2005년 이후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한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IV-9> 연도별 연구 방법 동향

2. 한지공예기법에 따른 분석

한지공예기법은 지승기법, 지장기법, 지호기법, 전지기법, 복합기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지승기법은 종이 노끈으로 엮어 만드는 방법이며, 지장기법은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그 안팎에 종이를 두세 겹 바르는 방법이다. 지호기법은 종이를 잘게 찢어 물에 불린 뒤 물과 섞어 일정한 틀에 부어 넣거나 덧붙여 이겨 만드는 방법이고, 전지기법은 만들어진 기물에 다양한 색지로 여러 가지 화려한 무늬를 오려 붙이는 방법이다. 복합기법은 2가지 이상의 기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다.

1) 한지공예기법의 총체적 분석

한지공예기법별 논문의 편수는 <그림 IV-10>과 같이 복합기법이 53편으로 가장 많았고 지장기법 17편, 지호기법 9편, 전지기법 8편, 지승기법 7편의 순으로 발표되었다.



<그림 IV-10> 한지공예기법별 논문 편수

2) 한지공예기법별 세부적 분석

(1)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발표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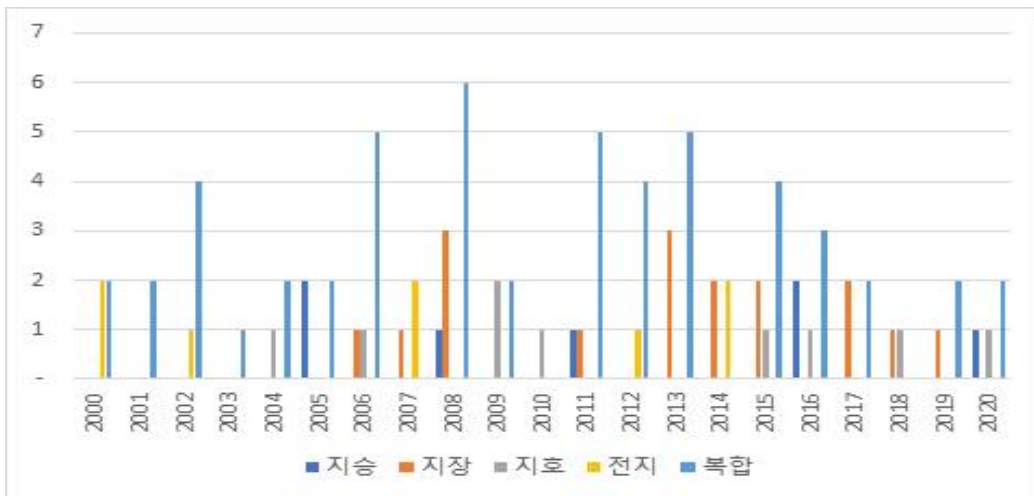
<표 IV-6>에서 한지공예기법별 연구의 발표 연도 분석을 살펴보면 지승기법에 대한 연구는 2005년·2016년에 각각 2편, 2008년·2011년·2020년에 각각 1편이 이루어졌고, 지장기법은 2008년·2013년에 각각 3편, 2014년·2015년·2017년에 각각 2편, 2006년·2007년·2011년·2018년·2019년에 각각 1편

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지호기법 연구는 2009년·2018년에 각각 2편, 2004년·2006년·2010년·2015년·2016년·2020년에 각각 1편이 이루어졌고, 전지기법은 2000년·2007년·2014년에 각각 2편, 2002년·2012년에 각각 1편의 논문이 나왔다. 복합기법은 2008년에 6편, 2006년·2011년·2013년에 각각 5편, 2002년·2012년·2015년에 각각 4편, 2016년에 3편, 2000년·2001년·2004년·2005년·2009년·2017년·2019년·2020년에 각각 2편 그리고 2003년에 1편의 연구물이 발표되었다.

<표 IV-6>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발표 연도

구분	지승	지장	지호	전지	복합	소계
2000년	-	-	-	2	2	4
2001년	-	-	-	-	2	2
2002년	-	-	-	1	4	5
2003년	-	-	-	-	1	1
2004년	-	-	1	-	2	3
2005년	2	-	-	-	2	4
2006년	-	1	1	-	5	7
2007년	-	1	-	2	-	3
2008년	1	3	-	-	6	10
2009년	-	-	2	-	2	4
2010년	-	-	1	-	-	1
2011년	1	1	-	-	5	7
2012년	-	-	-	1	4	5
2013년	-	3	-	-	5	8
2014년	-	2	-	2	-	4
2015년	-	2	1	-	4	7
2016년	2	-	1	-	3	6
2017년	-	2	-	-	2	4
2018년	-	1	2	-	-	2
2019년	-	1	-	-	2	3
2020년	1	-	1	-	2	4
합계	7	17	9	8	53	94

한지공예기법별 연구의 발표 연도 동향은 <그림 IV-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53편의 복합기법 논문이 20여 년 동안 고르게 발표되었다. 지장기법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지호기법은 2004년부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지기법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가 시행되었으나 이후 연구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한지공예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전지공예가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유추된다. 지승기법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전지기법과 유사하게 미진한 분야로 확인이 되었다.



<그림 IV-11>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발표 연도 동향

(2)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발표지 유형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발표지 유형 분석은 <표 IV-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승기법이 석사학위논문 4편, 학술지 논문 3편으로 총 7편, 지장기법은 석사학위논문 16편, 학술지 논문 1편으로 총 17편이었다. 지호기법은 석사학위논문

8편, 학술지 논문 1편으로 총 9편이 발표되었고 전지기법은 석사학위논문 7편, 학술지 논문 1편으로 총 8편이었다. 복합기법은 박사학위논문 1편, 석사학위논문 44편, 학술지 논문 8편으로 총 53편이었다.

〈표 IV-7〉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발표지 유형

구분	지승	지장	지호	전지	복합	소계
박사학위논문	-	-	-	-	1	1
석사학위논문	4	16	8	7	44	79
학술지 논문	3	1	1	1	8	14
합계	7	17	9	8	53	94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발표지 유형 동향은 〈그림 IV-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복합기법이 석사학위논문에서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다음으로 학술지 논문, 박사학위논문의 순이었다.



〈그림 IV-12〉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발표지 유형 동향

(3)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대상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대상은 <표 IV-8>과 같이 인적 대상과 물적 대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지승기법은 인적 대상 2편과 물적 대상 5편으로 총 7편의 연구가 발표되었고 지장기법은 인적 대상 6편과 물적 대상 11편으로 총 17편, 지호기법은 인적 대상 2편과 물적 대상 7편으로 총 9편, 전지기법은 인적 대상 1편과 물적 대상 7편으로 총 8편이었다. 복합기법은 인적 대상 30편과 물적 대상 23편으로 총 53편의 연구물이 발표되었다.

<표 IV-8>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대상

구분	지승	지장	지호	전지	복합	소계
인적 대상	2	6	2	1	30	41
물적 대상	5	11	7	7	23	53
합계	7	17	9	8	53	94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대상 동향은 <그림 IV-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적 대상과 물적 대상 모두 복합기법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적 대상은 지장기법, 지승기법·지호기법, 전지기법의 순이었으며 물적 대상은 지장기법, 지호기법·전지기법, 지승기법의 순을 보였다.



〈그림 IV-13〉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대상 동향

다음으로 한지공예기법별 인적 연구 대상과 물적 연구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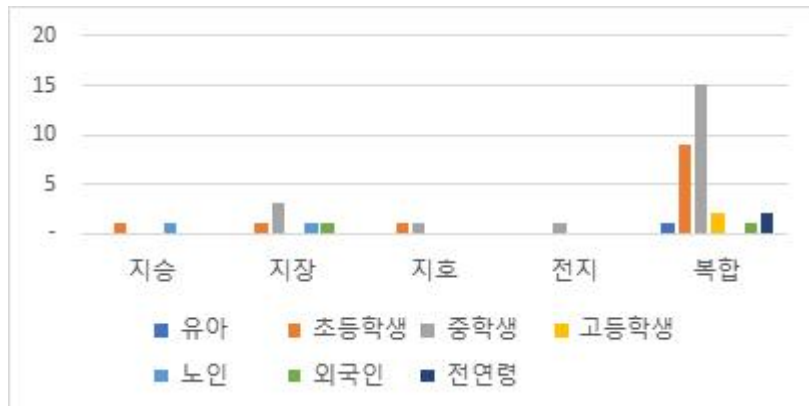
① 한지공예기법별 인적 연구 대상

한지공예기법별 인적 연구 대상은 <표 IV-9>에 제시한 바와 같이, 41편의 논문 가운데 복합기법은 유아 1편, 초등학생 9편, 중학생 15편, 고등학생 2편, 외국인 1편, 전 연령 2편으로 총 30편이었다. 지승기법은 초등학생 1편, 노인 1편으로 총 2편이었으며 지장기법은 초등학생 1편, 중학생 3편, 노인 1편, 외국인 1편으로 총 6편이 연구되었다. 지호기법은 초등학생 1편, 중학생 1편으로 총 2편이었으며, 전지기법은 중학생 1편이었다.

한지공예기법별 인적 연구 대상의 동향은 <그림 IV-14>과 같이 복합기법에 대한 연구가 전 연령에 걸쳐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지장기법이 그 뒤를 이어 초등학생, 중학생, 노인, 외국인 대상의 연구물이 나왔다. 지승기법, 지호기법, 전지기법은 인적 대상의 일부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졌다.

〈표 IV-9〉 한지공예기법별 인적 연구 대상

구분	지승	지장	지호	전지	복합	소계
유아	-	-	-	-	1	1
초등학생	1	1	1	-	9	12
중학생	-	3	1	1	15	20
고등학생	-	-	-	-	2	2
노인	1	1	-	-	-	2
외국인	-	1	-	-	1	2
전연령	-	-	-	-	2	2
합계	2	6	2	1	30	41



〈그림 IV-14〉 한지공예기법별 인적 연구 대상 동향

② 한지공예기법별 물적 연구 대상

한지공예기법별 물적 연구 대상은 〈표 IV-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복합기법이 서비스 8편, 재화 15편으로 총 23편의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지장기법은 서비스 1편, 재화 10편으로 총 11편이었으며, 지호기법은 재화 7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전지기법은 서비스 1편, 재화 6편으로 총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지승기법은 서비스 1편, 재화 4편으로 총 5편이 발표되었다.

〈표 IV-10〉 한지공예기법별 물적 연구 대상

구분	지승	지장	지호	전지	복합	소계
서비스	1	1	-	1	8	11
재화	4	10	7	6	15	42
합계	5	11	7	7	23	53

한지공예기법별 물적 연구 대상의 동향은 <그림 IV-1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복합기법의 경우 서비스에 비해 재화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전지기법, 지장기법, 지승기법의 물적 연구 대상 연구도 재화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반면 지호기법은 재화에 대한 연구만 있을 뿐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림 IV-15〉 한지공예기법별 물적 연구 대상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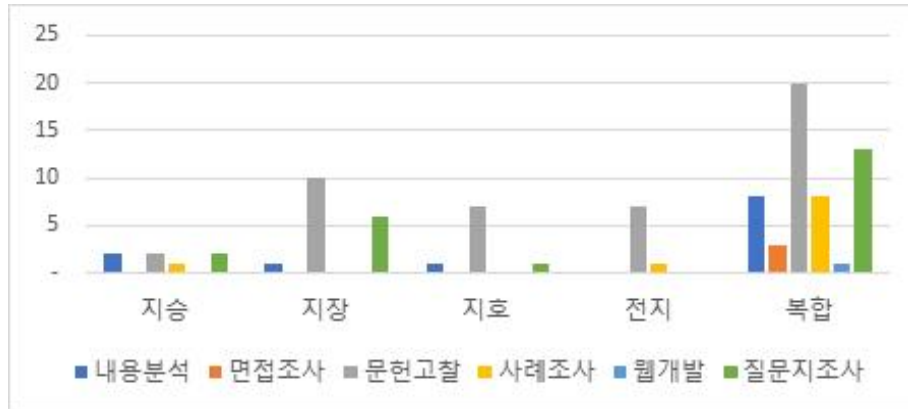
(4)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방법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방법은 <표 IV-11>과 같다. 지승기법은 내용분석, 문헌고찰, 질문지 조사 각각 2편, 사례조사 1편으로 총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지장기법은 내용분석 1편, 문헌고찰 10편, 질문지 조사 6편으로 총 17편의 연구물이 나왔다. 지호기법은 내용분석 1편, 문헌고찰 7편, 질문지 조사 1편으로 총 9편이 발표되었으며, 전지기법은 문헌고찰 7편, 사례조사 1편으로 총 8편의 논문이 있었다. 복합기법은 내용분석 8편, 면접조사 3편, 문헌고찰 20편, 사례조사 8편, 웹개발 1편, 질문지 조사 13편으로 총 53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표 IV-11>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방법

구분	지승	지장	지호	전지	복합	소계
내용분석	2	1	1	-	8	12
면접조사	-	-	-	-	3	3
문헌고찰	2	10	7	7	20	46
사례조사	1	-	-	1	8	10
웹개발	-	-	-	-	1	1
질문지 조사	2	6	1	-	13	22
합계	7	17	9	8	53	94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방법의 동향은 <그림 IV-16>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한지공예기법에 있어 가장 많이 적용된 연구 방법은 문헌고찰이었다. 다음으로 전지기법을 제외한 지승기법, 지장기법, 지호기법에서 질문지 조사와 내용분석 방법이 주로 적용되었다. 한편 복합기법은 면접조사와 웹 개발 방법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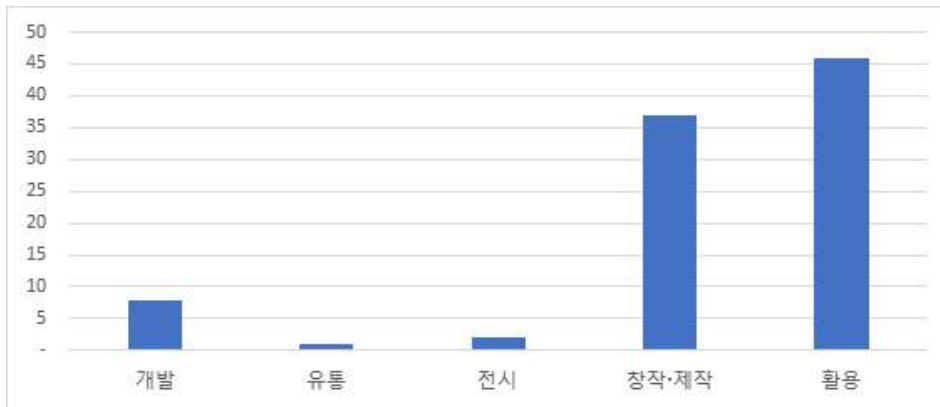
<그림 IV-16> 한지공예기법별 연구 방법 동향

3. 한지공예문화산업에 따른 분석

한지공예문화산업은 개발, 유통, 전시, 창작·제작, 활용의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개발 분야는 교육프로그램, 상품, 스마트콘텐츠 등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유통 분야는 공예품의 유통과 관련된 연구이며, 전시 분야는 공모전과 유물의 전시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창작·제작 분야는 공예품 제작과 작품 창작에 관한 연구이며, 활용 분야는 한지공예가 적용되는 콘텐츠 활용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1) 한지공예문화산업 연구의 총체적 분석

한지공예문화산업의 분야별 논문 편수를 살펴보면 <그림 IV-17>과 같이 활용 분야가 46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창작·제작 분야가 37편, 개발 분야가 8편, 전시 분야가 2편, 유통 분야가 1편이었다.



〈그림 IV-17〉 한지공예문화산업의 분야별 논문 편수

2)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의 세부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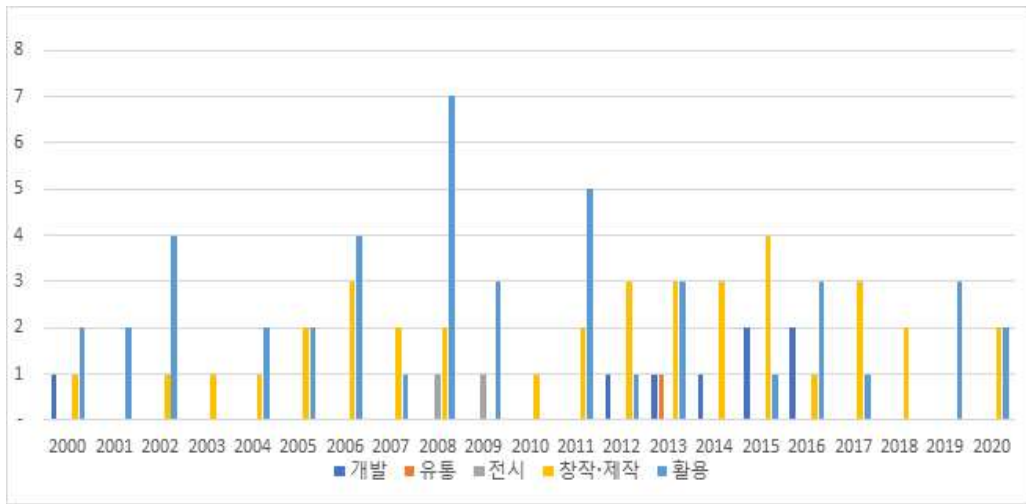
(1)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발표 연도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의 발표 연도는 <표 IV-12>와 같다. 개발 분야는 2000년·2012년·2013년·2014년에 각각 1편,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2편으로 총 8편이 발표되었다. 유통 분야는 2013년에 1편이 발표되었으며, 전시 분야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편으로 총 2편이 발표되었다. 창작·제작 분야는 2000년·2002년·2003년·2004년·2010년·2016년에 각각 1편, 2005년·2007년·2008년·2011년·2018년에 각각 2편, 2006년·2012년·2013년·2014년·2017년에 각각 3편으로 총 37편이 발표되었다. 활용 분야는 2007년·2012년·2015년·2017년에 각각 1편, 2000년·2001년·2004년·2005년·2020년에 각각 2편, 2009년·2013년·2016년·2019년에 각각 3편, 2002년·2006년에 각각 4편, 2011년에 5편, 2008년에 7편으로 총 46편이었다.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발표 연도의 동향은 <그림 IV-18>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08년에 활용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활용 분야는 분석 기간 전체에 걸쳐 전반적으로 고르게 연구물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또한 창작·제작 분야도 총 37편의 논문으로 2001년·2009년·2019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연구가 이루어졌다.

<표 IV-12>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발표 연도

구분	개발	유통	전시	창작·제작	활용	소계
2000년	1	-	-	1	2	4
2001년	-	-	-	-	2	2
2002년	-	-	-	1	4	5
2003년	-	-	-	1	-	1
2004년	-	-	-	1	2	3
2005년	-	-	-	2	2	4
2006년	-	-	-	3	4	7
2007년	-	-	-	2	1	3
2008년	-	-	1	2	7	10
2009년	-	-	1	-	3	4
2010년	-	-	-	1	-	1
2011년	-	-	-	2	5	7
2012년	1	-	-	3	1	5
2013년	1	1	-	3	3	8
2014년	1	-	-	3	-	4
2015년	2	-	-	4	1	7
2016년	2	-	-	1	3	6
2017년	-	-	-	3	1	4
2018년	-	-	-	2	-	2
2019년	-	-	-	-	3	3
2020년	-	-	-	2	2	4
합계	8	1	2	37	46	94



<그림 IV-18>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발표 연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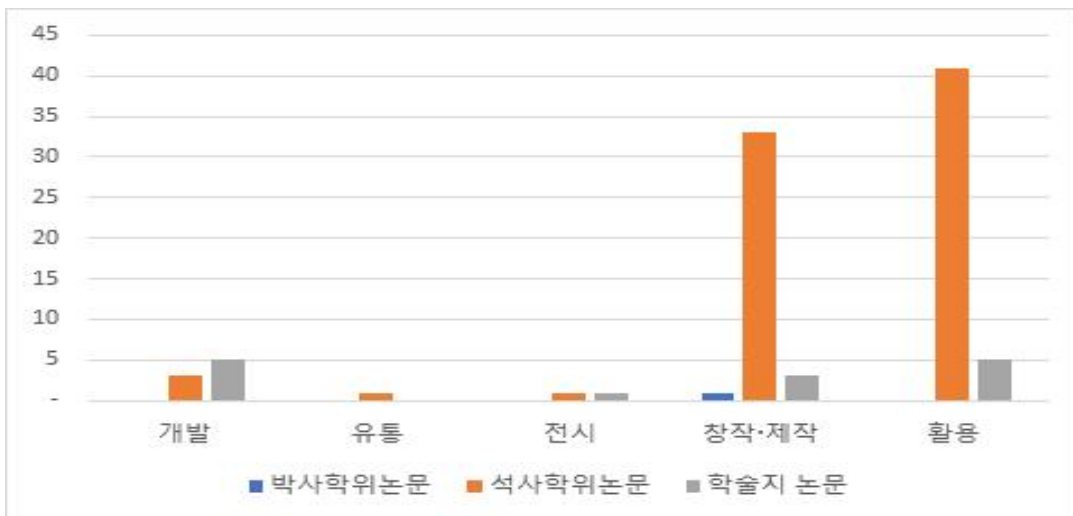
(2)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발표지 유형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발표지 유형은 <표 IV-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발 분야에서 석사학위논문 3편, 학술지 논문 5편으로 총 8편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유통 분야는 석사학위논문 1편만이 발표되었다. 전시 분야에서는 석사학위논문 1편과 학술지 논문 1편으로 총 2편의 연구가 있었으며 창작·제작 분야에서는 박사학위논문 1편, 석사학위논문 33편, 학술지 논문 3편으로 총 37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활용 분야에서는 석사학위논문 41편, 학술지 논문 5편으로 총 46편의 연구물이 나왔다.

한지공예산업별 연구 발표지 유형의 동향은 <그림 IV-19>와 같이 석사학위논문이 79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창작·제작 분야와 활용 분야의 연구가 크게 두드러졌다.

〈표 IV-13〉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발표지 유형

구분	개발	유통	전시	창작·제작	활용	소계
박사학위논문	-	-	-	1	-	1
석사학위논문	3	1	1	33	41	79
학술지 논문	5	-	1	3	5	14
합계	8	1	2	37	46	94



〈그림 IV-19〉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발표지 유형 동향

(3)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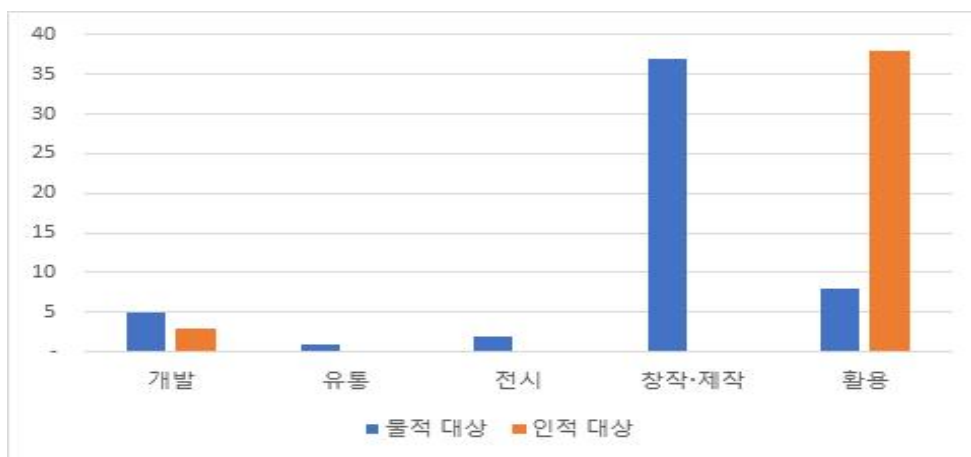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대상은 〈표 IV-14〉와 같이 인적 대상과 물적 대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개발 분야는 인적 대상 3편과 물적 대상 5편으로 총 8편의 연구물이 발표되었다. 유통 분야는 물적 대상의 연구 1편이 있고, 전시

분야도 물적 대상의 연구만 2편이 있었다. 창작·제작 분야는 물적 연구 대상으로 37편의 논문이 있었고 활용 분야는 인적 대상 38편과 물적 대상 8편으로 총 46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표 IV-14〉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대상

구분	개발	유통	전시	창작·제작	활용	소계
인적 대상	3	-	-	-	38	41
물적 대상	5	1	2	37	8	53
합계	8	1	2	37	46	94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대상 동향은 〈그림 IV-20〉에서와 같이 인적 대상은 개발 분야와 활용 분야에서만 논문이 발표된 반면 물적 대상은 한지공예문화산업의 전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특히 창작·제작 분야의 연구물이 가장 많았다.



〈그림 IV-20〉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대상 동향

다음으로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의 인적 대상과 물적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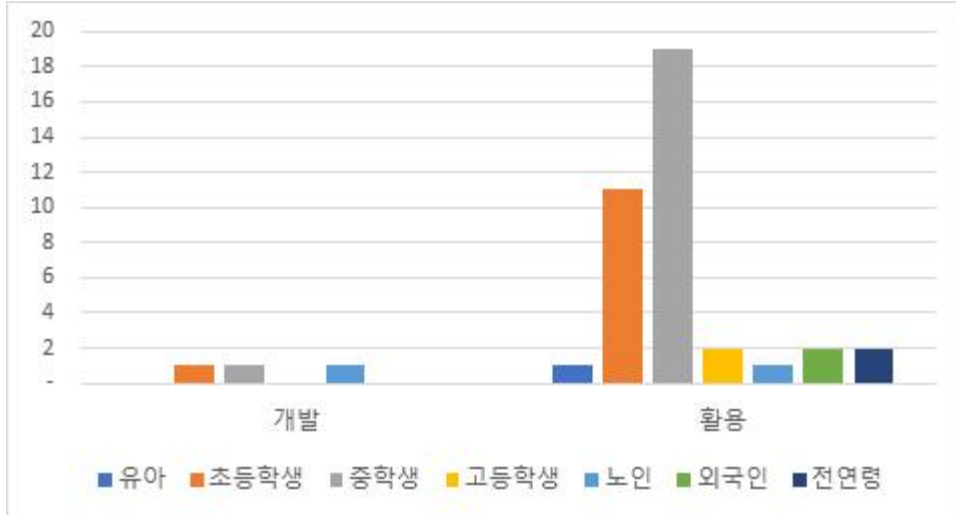
①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인적 연구 대상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인적 대상의 논문은 <표 IV-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발 분야와 활용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개발 분야의 인적 대상 연구는 초등학생 1편, 중학생 1편, 노인 1편으로 총 3편이었으며, 활용 분야의 인적 대상 연구는 유아 1편, 초등학생 11편, 중학생 19편, 고등학생 2편, 노인 1편, 외국인 2편, 전 연령 2편으로 총 38편의 논문이 있었다.

<표 IV-15>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인적 연구 대상

구분	개발	활용	소계
유아	-	1	1
초등학생	1	11	12
중학생	1	19	20
고등학생	-	2	2
노인	1	1	2
외국인	-	2	2
전연령	-	2	2
합계	3	38	41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인적 연구 대상의 동향은 <그림 IV-2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개발 분야와 활용 분야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21>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인적 연구 대상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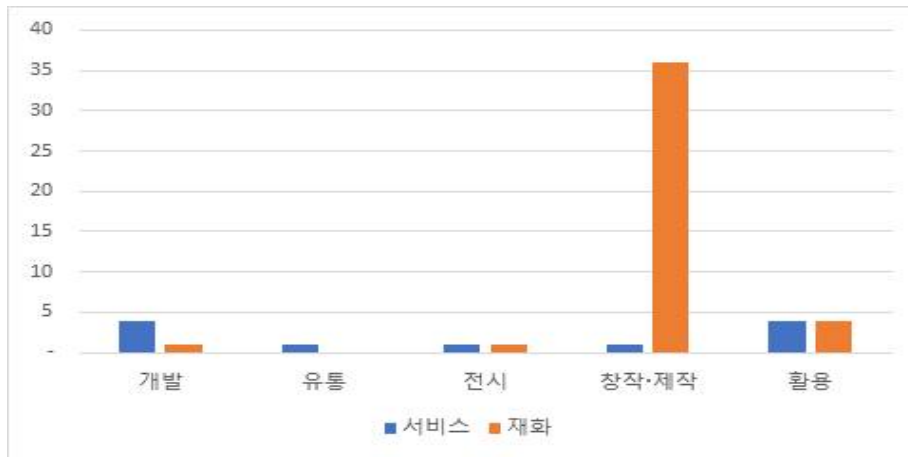
② 한지공예문화산업별 물적 연구 대상

한지공예문화산업별 물적 연구 대상은 <표 IV-16>에서와 같이 창작·제작 분야에서 서비스 1편, 재화 36편으로 총 3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활용 분야에서는 서비스 4편, 재화 4편으로 총 8편이었다. 개발 분야에서는 서비스 4편, 재화 1편으로 총 5편, 유통 분야에서는 서비스 1편, 전시 분야는 서비스 1편, 재화 1편으로 총 2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지공예문화산업별 물적 연구 대상의 동향은 <그림 IV-22>와 같이 창작·제작 분야에서 재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표 IV-16> 한지공예문화산업별 물적 연구 대상

구분	개발	유통	전시	창작·제작	활용	소계
서비스	4	1	1	1	4	11
재화	1	-	1	36	4	42
합계	5	1	2	37	8	53



<그림 IV-22> 한지공예문화산업별 물적 연구 대상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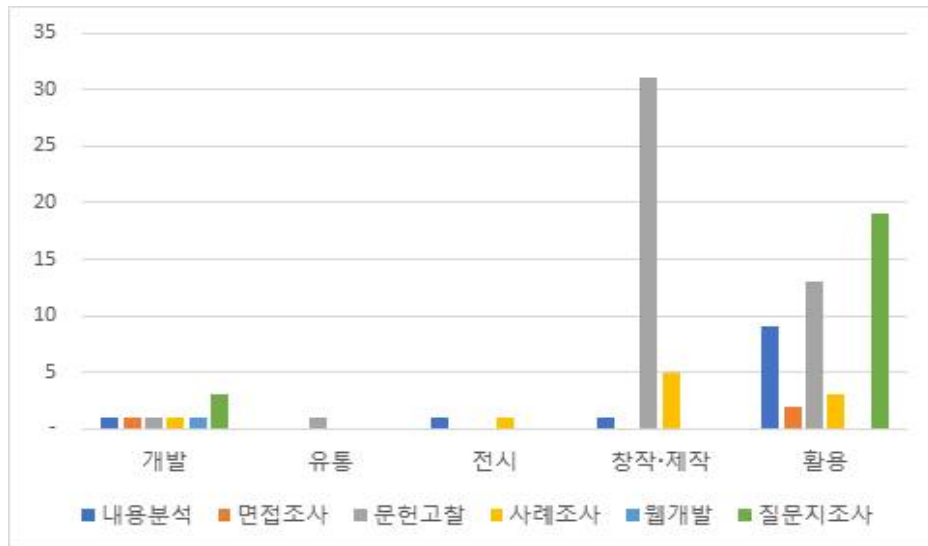
(4)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방법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방법은 <표 IV-17>과 같이 개발 분야에서 내용분석, 면접조사, 문헌고찰, 사례조사, 웹 개발이 각각 1편, 질문지 조사가 3편으로 총 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유통 분야는 문헌고찰 1편이 있었고, 전시 분야에서는 내용분석 1편, 사례조사 1편으로 총 2편의 연구물이 나왔다. 창작·제작 분야에서는 내용분석 1편, 문헌고찰 31편, 사례조사 5편으로 총 37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활용 분야에서는 내용분석 9편, 면접조사 2편, 문헌고찰 13편, 사례조사 3편, 질문지 조사 19편으로 총 46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방법의 동향은 <그림 IV-2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창작·제작 분야에서 문헌고찰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한편 개발 분야와 활용 분야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연구 방법이 적용되었다.

<표 IV-17>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방법

구분	개발	유통	전시	창작·제작	활용	소계
내용분석	1	-	1	1	9	12
면접조사	1	-	-	-	2	3
문헌고찰	1	1	-	31	13	46
사례조사	1	-	1	5	3	10
웹개발	1	-	-	-	-	1
질문지 조사	3	-	-	-	19	22
합계	8	1	2	37	46	94



<그림 IV-23> 한지공예문화산업별 연구 방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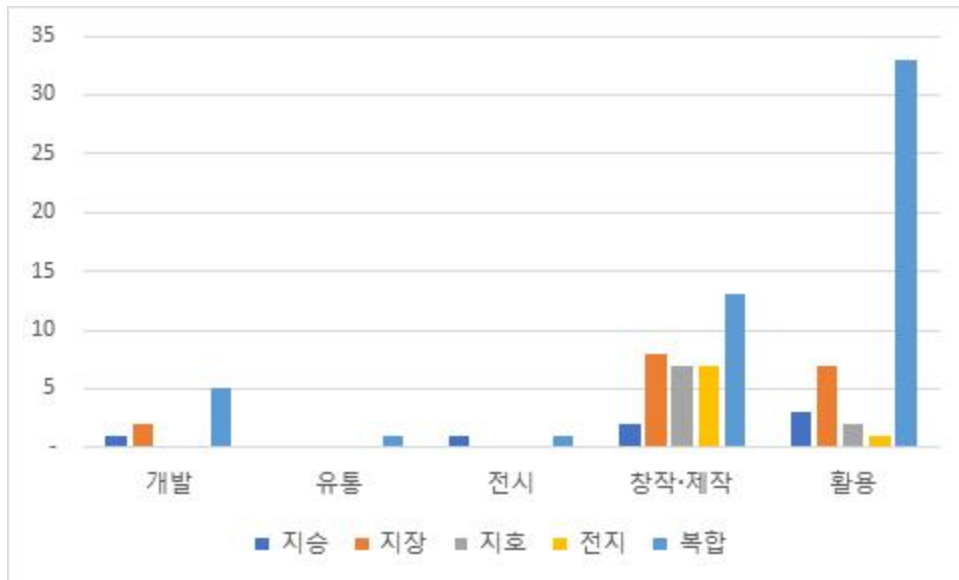
(5) 한지공예문화산업별 한지공예기법 연구

한지공예문화산업별 한지공예기법에 대한 연구는 <표 IV-18>과 같다. 개발 분야에서는 지승기법 1편, 지장기법 2편, 복합기법 5편으로 총 8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유통 분야에서는 복합기법 1편이 발표되었으며 전시 분야에서는 지승기법 1편, 복합기법 1편으로 총 2편의 논문이 있었다. 창작·제작 분야에서는 지승기법 2편, 지장기법 8편, 지호기법 7편, 전지기법 7편, 복합기법 13편으로 총 37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활용 분야에서는 지승기법 3편, 지장기법 7편, 지호기법 2편, 전지기법 1편, 복합기법 33편으로 총 46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표 IV-18> 한지공예문화산업별 한지공예기법 연구

구분	개발	유통	전시	창작·제작	활용	소계
지승	1	-	1	2	3	7
지장	2	-	-	8	7	17
지호	-	-	-	7	2	9
전시	-	-	-	7	1	8
복합	5	1	1	13	33	53
합계	8	1	2	37	46	94

한지공예문화산업별 한지공예기법의 연구 동향은 <그림 IV-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활용 분야에서 복합기법의 연구가 월등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작·제작 분야에서는 모든 한지공예기법이 연구물로 발표되었다. 반면 유통 분야와 전시 분야에서는 앞으로 한지공예기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림 IV-24〉 한지공예문화산업별 한지공예기법 연구 동향

4. 한지공예문화콘텐츠에 따른 분석

한지공예문화콘텐츠는 장식용품, 소품, 생활용품, 공공콘텐츠,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영역으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여기서 장식용품 영역은 실내에서 장식성이 강한 용품을 의미하고, 소품 영역은 액세서리 등과 같이 소지하고 이동이 가능한 용품을 뜻하며, 생활용품 영역은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사용이 이루어지는 용품을 말한다. 공공콘텐츠 영역은 공공을 위한 전시나 프로그램 등을 일컬으며,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은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뜻하고, 디지털콘텐츠 영역은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자료나 정보를 의미한다.

1) 한지공예문화콘텐츠의 총체적 분석

한지공예문화콘텐츠의 영역에 따른 논문 편수는 <그림 IV-25>에서와 같이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이 40편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생활용품 영역 27편, 공공콘텐츠 영역 10편, 장식용품 영역 9편, 소품 영역 6편, 디지털콘텐츠 영역 2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림 IV-25> 한지공예문화콘텐츠에 따른 논문 편수

2)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세부적 분석

(1)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발표 연도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발표 연도는 <표 IV-19>와 같다. 공공콘텐츠 영역은 2008년·2009년·2014년·2015년·2020년에 각각 1편, 2016년에 2편, 2013년에 3년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은 2004년·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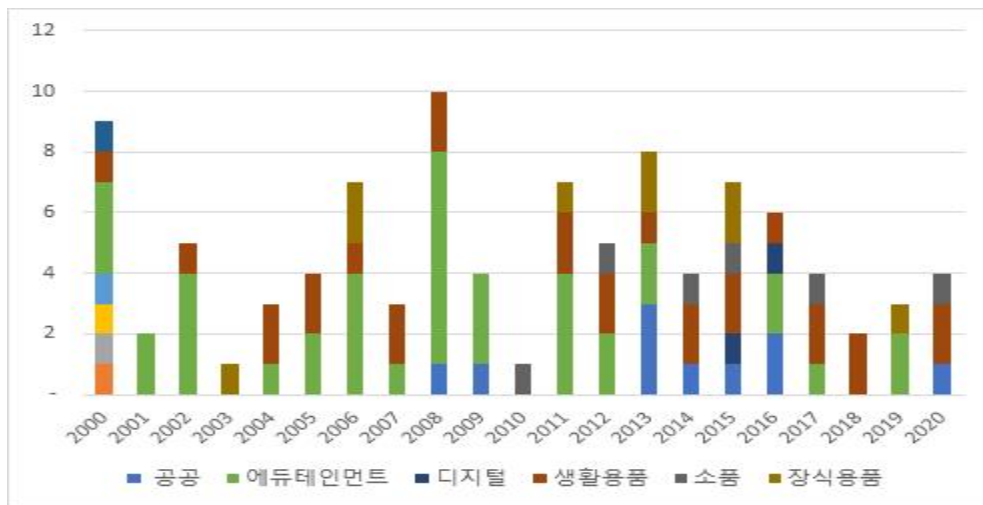
년·2017년에 각각 1편, 2001년·2005년·2012년·2013년·2016년·2019년에 각각 2편, 2000년·2009년에 각각 3편, 2002년·2006년·2011년에 각각 4편, 2008년에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디지털콘텐츠 영역은 2015년·2016년에 각각 1편이 연구되었다. 생활용품 영역은 2000년·2002년·2006년·2013년·2016년에 각각 1편, 2004년·2005년·2007년·2008년·2011년·2012년·2014년·2015년·2017년·2018년·2020년에 각각 2편의 연구가 발표되었

〈표 IV-19〉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발표 연도

구분	공공 콘텐츠	에듀테 인먼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생활 용품	소품	장식 용품	소계
2000년	-	3	-	1	-	-	4
2001년	-	2	-	-	-	-	2
2002년	-	4	-	1	-	-	5
2003년	-	-	-	-	-	1	1
2004년	-	1	-	2	-	-	3
2005년	-	2	-	2	-	-	4
2006년	-	4	-	1	-	2	7
2007년	-	1	-	2	-	-	3
2008년	1	7	-	2	-	-	10
2009년	1	3	-	-	-	-	4
2010년	-	-	-	-	1	-	1
2011년	-	4	-	2	-	1	7
2012년	-	2	-	2	1	-	5
2013년	3	2	-	1	-	2	8
2014년	1	-	-	2	1	-	4
2015년	1	-	1	2	1	2	7
2016년	2	2	1	1	-	-	6
2017년	-	1	-	2	1	-	4
2018년	-	-	-	2	-	-	2
2019년	-	2	-	-	-	1	3
2020년	1	-	-	2	1	-	4
합계	10	40	2	27	6	9	94

다. 소품 영역은 2010년·2012년·2014년·2015년·2017년·2020년에 각각 1편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장식용품 영역은 2003년·2011년·2019년에 각각 1편, 2006년·2013년·2015년에 각각 2편의 연구물이 나왔다.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발표 연도의 동향은 <그림 IV-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이 전체 기간에 걸쳐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한편 2014년 이후로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의 연구가 점차 감소한 데 반해 생활용품 영역의 연구는 증가하였다.



<그림 IV-26>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발표 연도 동향

(2)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발표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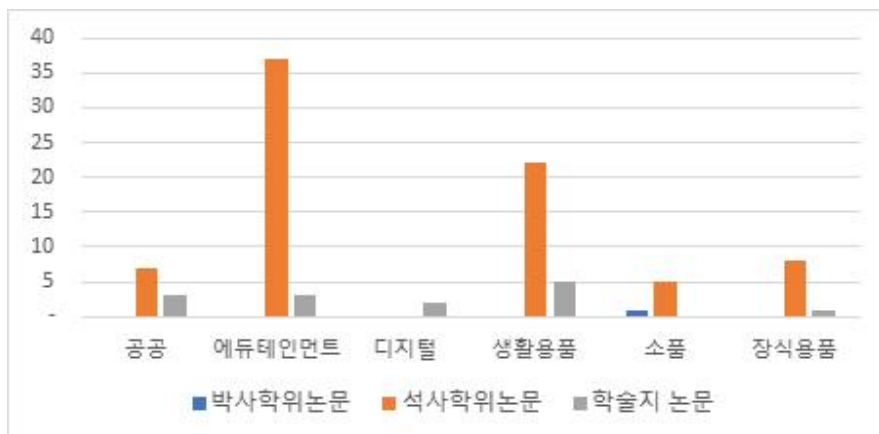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발표지 유형은 <표 IV-20>과 같이 공공콘텐츠 영역은 석사학위논문 7편, 학술지 논문 3편으로 총 10편,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은 석사학위논문 37편, 학술지 논문 3편으로 총 40편이 발표되었다. 디지털콘텐츠 영역은 학술지 논문만 2편이 있었다. 생활용품 영역은 석사학위논문

22편, 학술지 논문 5편으로 총 27편의 연구가 있었으며, 소품 영역은 박사학위 논문 1편, 석사학위논문 5편으로 총 6편의 연구가 발표되었고, 장식용품 영역은 석사학위논문 8편, 학술지 논문 1편으로 총 9편의 논문이 있었다.

〈표 IV-20〉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발표지 유형

구분	공공 콘텐츠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생활용품	소품	장식용품	소계
박사학위논문	-	-	-	-	1	-	1
석사학위논문	7	37	-	22	5	8	79
학술지 논문	3	3	2	5	-	1	14
합계	10	40	2	27	6	9	94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발표지 유형의 동향은 〈그림 IV-27〉과 같이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에서 석사학위논문이 가장 많았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에는 생활용품 영역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림 IV-27〉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발표지 유형 동향

(3)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대상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대상은 <표 IV-21>과 같이 인적 대상과 물적 대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공공콘텐츠 영역은 물적 대상 7편, 인적 대상 3편으로 총 10편의 연구,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은 물적 대상 2편, 인적 대상 38편으로 총 40편의 연구, 디지털콘텐츠 영역은 물적 대상 2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생활용품 영역은 물적 대상 27편, 소품 영역은 물적 대상 6편, 장식용품 영역 물적 대상 9편의 연구물이 있었다.

<표 IV-21>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대상

구분	공공 콘텐츠	에듀테 인먼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생활 용품	소품	장식 용품	소계
인적 대상	3	38	-	-	-	-	41
물적 대상	7	2	2	27	6	9	53
합계	10	40	2	27	6	9	94



<그림 IV-28>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대상 동향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대상의 동향은 <그림 IV-28>과 같이 인적 대상은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에서의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물적 대상은 생활용품 영역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연구 비중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대상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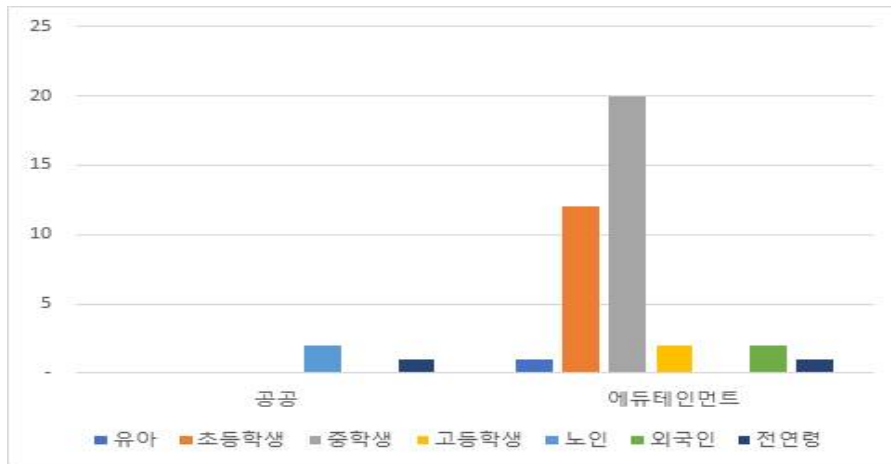
①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인적 연구 대상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인적 연구 대상은 <표 IV-22>와 같이 공공콘텐츠 영역과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공공콘텐츠 영역에서는 노인 2편, 전 연령 1편으로 총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에서는 유아 1편, 초등학생 12편, 중학생 20편, 고등학생 2편, 외국인 2편, 전 연령 1편으로 총 38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표 IV-22>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인적 연구 대상

구분	공공콘텐츠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소계
유아	-	1	1
초등학생	-	12	12
중학생	-	20	20
고등학생	-	2	2
노인	2	-	2
외국인	-	2	2
전 연령	1	1	2
합계	3	38	41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인적 연구 대상의 동향은 다음 <그림 IV-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에서 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림 IV-29>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인적 연구 대상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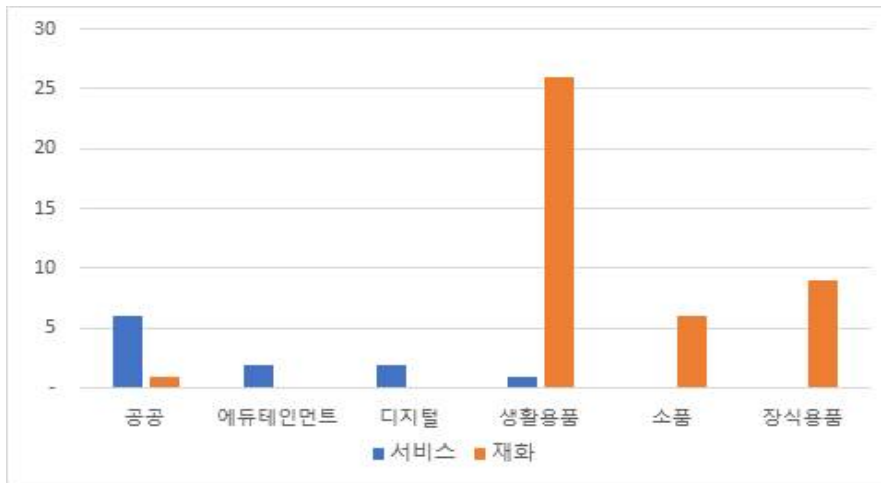
②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물적 연구 대상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물적 연구 대상은 <표 IV-2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생활용품 영역에서 서비스 1편, 재화 26편으로 총 27편의 논문이 나타나 가장 많은 연구물이 있었다. 다음으로 공공콘텐츠 영역에서 서비스 6편, 재화 1편으로 총 7편,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과 디지털콘텐츠 영역에서 서비스에 각각 2편의 연구가 있었고, 소품 영역에서는 서비스 6편, 장식용품 영역에서는 서비스 9편의 논문이 있었다.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물적 연구 대상 동향은 <그림 IV-3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용품 영역은 재화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공공콘텐츠 영역은 서비스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표 IV-23〉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물적 연구 대상

구분	공공 콘텐츠	에듀테 인먼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생활 용품	소품	장식 용품	소계
서비스	6	2	2	1	-	-	11
재화	1	-	-	26	6	9	42
합계	7	2	2	27	6	9	53



〈그림 IV-30〉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물적 연구 대상 동향

(4)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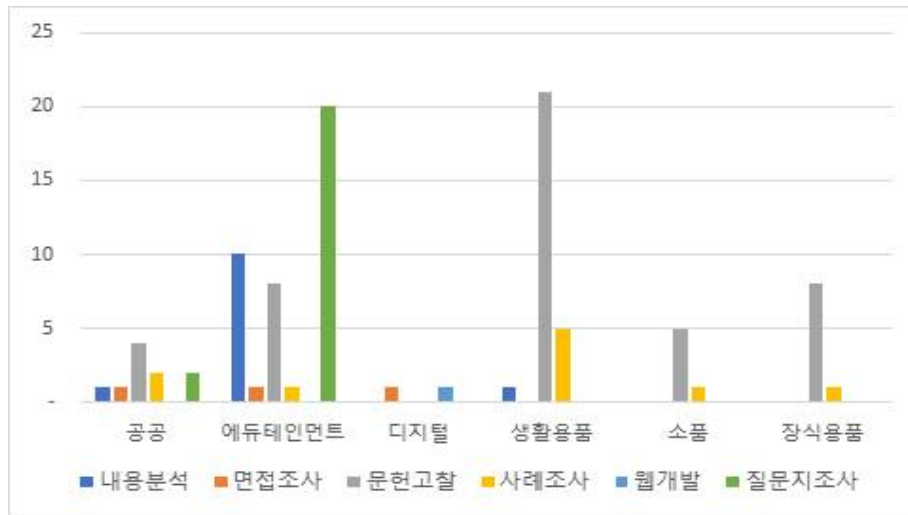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방법은 〈표 IV-24〉와 같이 공공콘텐츠 영역은 내용분석과 면접조사 각각 1편, 사례조사와 질문지 조사 각각 2편, 문헌고찰 4

편으로 총 10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은 면접조사와 사례조사 각각 1편, 문헌고찰 8편, 내용분석 10편, 질문지 조사 20편으로 총 40편이 연구되었다. 디지털콘텐츠 영역은 면접조사와 웹 개발 각각 1편으로 총 2편이 발표되었다. 생활용품 영역은 내용분석 1편, 사례조사 5편, 문헌고찰 21편으로 총 27편이었고 소품 영역은 사례조사 1편, 문헌고찰 5편으로 총 6편이 연구되었다. 장식용품 영역은 사례조사 1편, 문헌고찰 8편으로 총 9편이 발표되었다.

〈표 IV-24〉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방법

구분	공공 콘텐츠	에듀테 인먼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생활 용품	소품	장식 용품	소계
내용분석	1	10	-	1	-	-	12
면접조사	1	1	1	-	-	-	3
문헌고찰	4	8	-	21	5	8	46
사례조사	2	1	-	5	1	1	10
웹 개발	-	-	1	-	-	-	1
질문지 조사	2	20	-	-	-	-	22
합계	10	40	2	27	6	9	94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방법의 동향은 〈그림 IV-3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과 공공콘텐츠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 방법에 의한 연구물들이 발표되었고 생활용품 영역에서는 문헌고찰 방법을 주로 이용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림 IV-31>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연구 방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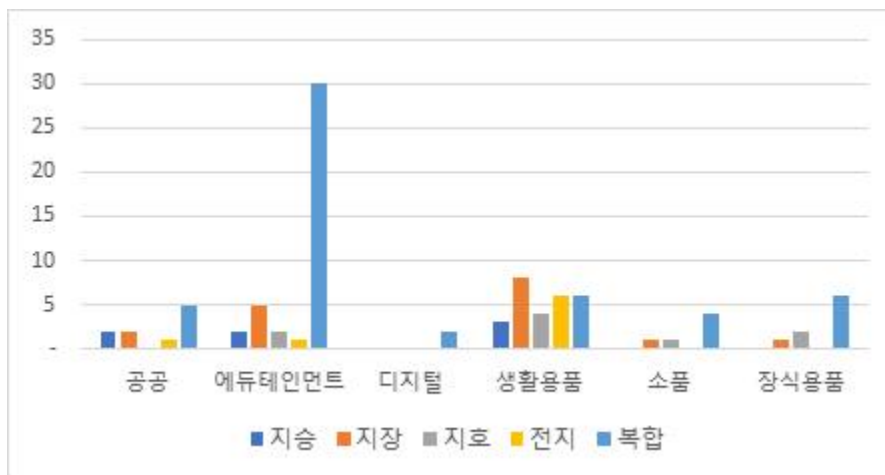
(5)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한지공예기법 연구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한지공예기법 연구는 <표 IV-25>와 같이 공공콘텐츠 영역은 지승기법 2편, 지장기법 2편, 전지기법 1편, 복합기법 5편으로 총 10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은 지승기법 2편, 지장기법 5편, 지호기법 2편, 전지기법 1편, 복합기법 30편으로 총 40편이 연구되었고 디지털콘텐츠 영역은 복합기법 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생활용품 영역은 지승기법 3편, 지장기법 8편, 지호기법 4편, 전지기법 6편, 복합기법 6편으로 총 27편의 연구가 있었다. 소품 영역은 지장기법 1편, 지호기법 1편, 복합기법 4편으로 총 27편의 논문이 있었고, 장식용품 영역은 지장기법 1편, 자호기법 2편, 복합기법 6편으로 총 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표 IV-25〉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한지공예기법 연구

구분	공공 콘텐츠	에듀테 인먼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생활 용품	소품	장식 용품	소계
지승	2	2	-	3	-	-	7
지장	2	5	-	8	1	1	17
지호	-	2	-	4	1	2	9
전지	1	1	-	6	-	-	8
복합	5	30	2	6	4	6	53
합계	10	40	2	27	6	9	94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한지공예기법 연구의 동향은 〈그림 IV-32〉와 같이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에서는 2개 이상의 복합기법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생활용품 영역에서는 각 한지공예기법이 다양하게 연구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IV-32〉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한지공예기법 연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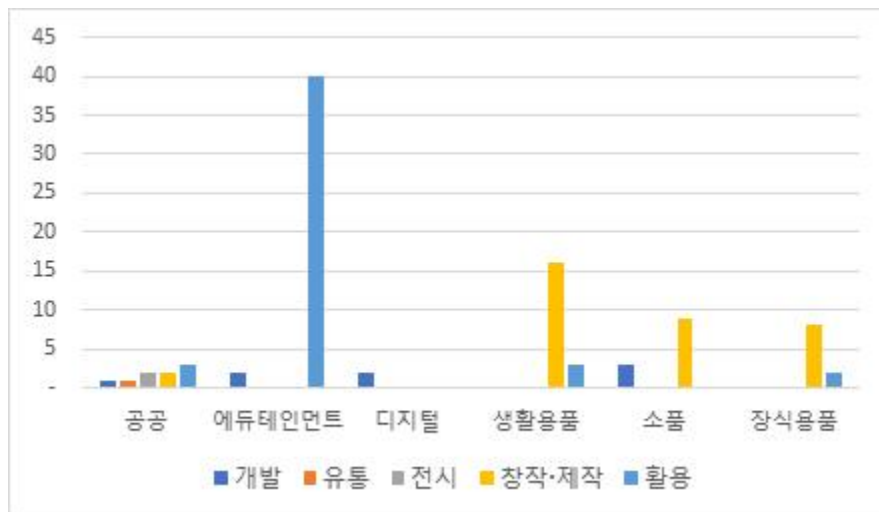
(6)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한지공예문화산업 연구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한지공예문화산업 연구는 <표 IV-26>과 같이 공공콘텐츠 영역은 개발 분야와 유통 분야에서 각각 1편, 전시 분야와 창작·제작 분야에서 각각 2편, 활용 분야에서 3편으로 총 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은 개발 분야에서 2편, 활용 분야에서 40편으로 총 42편의 연구가 발표되었고, 디지털콘텐츠 영역은 개발 분야에서 2편만 연구되었다. 생활용품 영역에서는 창작·제작 분야에서 16편, 활용 분야에서 3편으로 총 19편이 발표되었으며, 소품 영역은 개발 분야에서 3편, 창작·제작 분야에서 9편으로 총 12편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장식용품 영역은 창작·제작 분야에서 8편, 활용 분야에서 2편으로 총 10편이 발표되었다.

<표 IV-26>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한지공예문화산업 연구

구분	공공 콘텐츠	에듀테 인먼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생활 용품	소품	장식 용품	소계
개발	1	2	2	-	3	-	8
유통	1	-	-	-	-	-	1
전시	2	-	-	-	-	-	2
창작·제작	2	-	-	16	9	8	35
활용	3	40	-	3	-	2	48
합계	9	42	2	19	12	10	94

다음으로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한지공예문화산업 연구의 동향은 <그림 IV-33>과 같이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에서 활용 분야의 연구가 많았으며, 생활용품·소품·장식용품의 영역에서는 창작·제작 분야의 연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33> 한지공예문화콘텐츠별 한지공예문화산업 연구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여 년 동안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을 자료로 수집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한지공예문화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기존의 연구 체제를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와 더불어 한지공예문화 계승 측면에서 한지공예기법의 연구동향, 한지공예문화 진흥 측면에서 한지공예문화산업의 연구동향 그리고 한지공예문화 가치구현 측면에서 한지공예문화콘텐츠의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발전적인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목적에 따라 총 94편의 논문을 자료로 수집하여 편수를 집계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지공예문화 연구 체제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8년에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미학적,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자긍심을 길러 전통 미술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도록 명시한 2007년 7차 개정 교육과정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2017년 이후부터 연구가 다소 줄어드는 상황도 확인되었다. 연구 발표지 유형은 학술지 논문이 14편이었고, 학위논문은 석사학위논문 79편과 박사학위논문 1편으로 향후 한지공예문화의 학술적 기반을 심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되었다. 연구 대상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연구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 외국인이나 노인 등 보다 폭넓은 대상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한지공예문화는 재화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다가 2008년부터 관련 서비스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연구 방법은 문헌고찰이 가장 많았고 상대적으로 질문지 조사, 내용분석, 면접조사, 사례조사, 웹 개발 연구는 적었다. 이로 보아 향후 한지공예문화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한지공예 관련 매체의 내용분석과 사례 탐구, 무형문화재나

공예작가 등 전문가 대상의 면접조사, 한지공예에 IT 기술을 접목한 웹 개발 등의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한지공예기법에 따른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둘 이상의 기법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복합기법 연구가 53편으로 가장 많아 20여 년 동안 고르게 발표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지장기법 17편, 지호기법 9편, 전지기법 8편, 지승기법 7편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전지기법은 2015년 이후 연구물이 보이지 않았으며, 지승기법과 지호기법은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었다. 이는 연구 대상의 동향과도 연관이 있어 인적 연구 대상과 물적 연구 대상 모두 복합기법 연구가 가장 많고 지장기법, 지호기법, 전지기법, 지승기법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었다. 한지공예문화 계승의 측면을 고려할 때 앞으로 복합기법뿐 아니라 개별 기법에 대한 원형을 조명하고 전승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연구의 작업이 요구된다. 2021년 서울공예박물관의 개관⁵³⁾을 비롯해 공예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한지공예문화에 있어서도 유아로부터 노인 에 이르는 인적 대상의 다양한 한지공예기법 경험 연구, 재화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물적 대상에 대한 한지공예기법 적용 연구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지공예문화산업에 따른 연구동향의 분석 결과, 활용 분야의 논문이 46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창작·제작 분야 37편, 개발 분야 8편, 전시 분야 2편, 유통 분야 1편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활용 분야와 창작·제작 분야에서는 분석 기간 전체에 걸쳐 꾸준히 연구물이 발표되었다. 또한 활용 분야는 인적 연구 대상 38편의 논문 중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연구가 30편, 창작·제작 분야는 물적 연구 대상 37편의 논문 중 재화 연구가 36편으로 한지공예문화산업 분야의 연구 대상에서 편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한지공예문화산업별 한지공예기법의 연구동향은 활용 분야에서 복합기법 연구

53) 서울공예박물관(<https://craftmuseum.seoul.go.kr>)은 한국 최초의 공립 공예박물관으로 공예품 뿐만 아니라 공예를 둘러싼 지식, 기록, 사람, 환경 등을 연구하고 공유함으로써 공예가 지닌 기술적, 실용적,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역동적인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건립되었다.

가 월등히 많았고 창작·제작 분야에서는 모든 한지공예기법이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반면 개발 분야, 전시 분야, 유통 분야에서는 한지공예기법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이에 사회적으로 한지공예문화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한지공예기법 관련 교육, 상품, 스마트콘텐츠 등의 개발 산업, 공모전이나 유물의 전시 산업, 공예품의 유통 산업 등의 연구도 촉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지공예문화콘텐츠에 따른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에서 40편의 논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고 다음으로 생활용품 영역 27편, 공공콘텐츠 영역 10편, 장식용품 영역 9편, 소품 영역 6편, 디지털콘텐츠 영역 2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영역의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교육적 관점의 접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한지공예문화의 가치 구현을 위해서는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는 자료나 정보 관련 콘텐츠 그리고 공공을 위한 전시나 프로그램에 관한 콘텐츠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콘텐츠 영역의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시행해 기존 디지털 형태의 자료나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검토하고, 공공콘텐츠 영역의 연구에서는 사회 곳곳에서 개최되는 전시와 체험에 대한 사례조사나 설문지 조사를 이행해 유용성을 확인하여 궁극적으로 개선된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지공예기법을 토대로 소비자가 자유롭게 소지하고 이동할 수 있는 소품 및 실내 장식을 위한 용품 등의 연구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례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나 설문지 조사를 통해 한지공예로 제작된 소품이나 장식용품에 대한 가치 인식과 구매 만족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가치와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본 연구에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이후 2000년부터 발표된 논문을 자료로

수집하였으나 그 이전 시기부터 포함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한지공예문화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계속 파악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한지공예기법, 한지공예문화산업, 한지공예문화콘텐츠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한지공예문화 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연구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종이문화, 신유, 1995.
- 김병기, 한국과학사, 이우, 1982.
- 김영순 외,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2014.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고서,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 문화체육관광부, 2013.
- 박남희 외, 2013 공예백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 심화숙, 전통한지공예, 우리출판사, 2005.
- 야나기 무네요시 저, 이길진 역, 공예의 길, 신구, 2001.
- 유제상, 문화콘텐츠학 강의, 컨텐츠하우스, 2009.
- 이승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지, 현암사, 2007.
- 이종석, 한국의 전통공예, 열화당, 1998.
- 임영주·상기호, 종이공예문화, 대원사, 2011.
- 임영주 외, 한국의 전통공예기술,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 최연구,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살림, 2011.
- 최영성, 사상으로 읽는 전통문화, 이른 아침, 2016.
- 최영숙·이주은, 한눈에 보는 한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0.
- 추원교, 우리 공예문화, 예경, 2003.
- 장경희, 지승제조, 민속원, 2011.
- 정선영, 종이의 역사, 국립민속박물관, 1995.
- 정선화 외, 우리종이 한지: 공정조사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 연감, 2009.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 연감, 2010.

허보윤, 공예문화 중장기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학위논문>

강이임, 종이 활용을 통한 전통공예 요소의 표현 효과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강지희, 전통 한지공예기법을 활용한 학습지도방안 연구: 중학교 미술 수업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고민정, 중학교 디자인 교육을 위한 한지공예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고성례, 傳統韓紙 紙畫工藝技法을 活用한 文化商品 開發에 관한 研究: 民畫를 中心으로, 전주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고영희, 韓國 民俗工藝의 傳統性에 關한 研究: 트와이닝作品을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권태교, 중학교 전통미술 감상수업 활용을 통한 창의성 신장 연구: 한지공예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기정, 문화콘텐츠 개념과 의의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귀연, 한지를 소재로 평면조형 작품연구: 한지 줍치기법과 바느질기법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김다혜, 한지 작가의 작품 활동 분석을 통한 대안적 전통미술교육 연구: 중학교 한지 활용 수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김리완, 전통한지공예기법을 활용한 지호공예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김미경, 한지를 활용한 미술 지도 방안 연구: 원주한지문화제를 중심으로,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미선, 한글 패턴을 이용한 지호공예 조형 연구,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김미화, 韓紙工藝의 美術教育的 活用方案에 관한 研究,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민정, 韓國 紙工藝의 造形性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선영, 공예활동중심 집단미술치료가 독거노인의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선문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김선애, 紙繩工藝 技法에 관한 研究: 作品製作을 中心으로,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성숙,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미술 표현 활동의 연구: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영란, 傳統韓紙工藝技法을 活用한 紙畫工藝 研究: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김영미, 오색전지공예디자인 문양의 기호학적 조형성 연구, 대진대학교 문화예술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김영호, 한지공예의 변천 과정 및 그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김예름, 한지의 색채를 활용한 한지공예 조형연구: 연구자 작품을 중심으로,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김옥영, 전통한지를 매체로 한 한지공예 기물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연구: 전지공예와 지승공예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 2012.

- 김은수, 한지공예 학습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 설계 및 구현: 지승공예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김은순, 한지에 나타난 COLOR에 관한 연구: 공예용 색 한지와 공모전에 나타난 수상작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은의, 한지를 이용한 창의적인 미술교육의 방안 모색: 초등학교 3,4학년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재성, 공예와 관련된 공모대전의 체계적 고찰과 발전 방향: 한지 공모대전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정희, 노후여가 활동을 위한 한지공예 프로그램 개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주연, 중학교 미술교과에서 한지공예 활용방안: 줌치기법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주영, 십장생 문양 표현과 한지공예 제작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김지영, 단청문양을 이용한 전통한지공예의 활용 방안 연구,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지현, 한지의 재료적 특성을 이용한 아트퍼니처 연구: 실내 조명 디자인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현선, 한지공예 분석 연구: 전통오색전지 공예 기법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현숙, 색한지의 조형성을 응용한 한지문화상품개발 연구, 전주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효정, 중등교육의 한지공예 지도방법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희숙, 전통지물공예 기법을 활용한 남성 쓰개 용구에 관한 연구: 본인 작품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나미심, 천연염색을 이용한 한지 공예연구: 닥종이 인형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나상연, 지역 전통예술문화를 기로초 한 초등학교 6학년 미술교육의 특성화 방안 연구: 원주한지공예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박지혜, 한지의 중첩을 이용한 장신구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박찬희, 한지의 특성을 이용한 현대장신구의 오브제 표현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반미선, 한지를 활용한 고등학교 미술 수업연구: 전통 미술 교육 단원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배윤숙, 천연염색을 이용한 한지 공예학습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봉순이, 한글을 모티브로 한 한지 조형 작품 개발 연구, 전주대학교 한지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서경임, 미술교육에서 민화를 활용한 지공예 지도 방안 연구: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서영지, 문화정체성이 반영된 문화상품에 관한 연구: 민화를 이용한 한지조합 디자인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송수정, 중학교 전통 미술 교육을 위한 한지공예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송유선, 중학교 미술교육에서 연화문을 활용한 지장공예 지도 연구 방안,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송정아, 한지 찢어 붙이기 표현방법의 수업 적용 연구: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신순단, 韓紙作業을 통한 工藝品 活用方案 연구: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상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신재승, 압화공예기법과 한지를 소재로 한 문화상품 개발 연구,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심화숙, 전통 한지공예의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한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안태정, 문화콘텐츠로서의 공예와 홍보: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양미영, 닥섬유를 활용한 공예문화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 장신구 제작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양용선, 한지공예산업 발전을 위한 디자인 경영전략 연구,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양재희, 한지 공예를 이용한 중학교 미술지도 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양정희, 섬유평예에 나타난 전통문양 활용 지도 연구: 한지공예를 중심으로, 중부산업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양지원, 한지공예의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오경해, 천연 염색 한지의 조형적 가능성에 관한 연구: 생활공예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오석심, 韓紙工藝技法을 이용한 生活用品 開發에 관한 研究: 韓紙工藝 家具 制作을 中心으로,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오성희, 遺物再現을 통한 紙裝工藝 研究: 본인 작품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문

- 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오유진, 닥섬유를 활용한 현대조형작품 연구: 본인 작품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오은진, 한지와 표현기법을 통한 한지조형작품연구,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유희자, 한지공예에 나타난 문양연구: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윤순심, 우리나라 지장(紙裝)공예 연구,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윤양운, 한지공예와 현대미술기법을 접목한 전통미술교육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윤여숙, 중학생을 위한 지(紙)공예 기법 지도에 관한 연구: 특기적성반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경미, 전통 한지 공예를 활용한 수업 방안에 관한 연구: 중학교 2학년 꾸미기와 만들기 수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량미, 조선시대 유지공예(油紙工藝)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이맹자, 전통한지를 소재로 한 천연염색에 관한 연구: 오방색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이순길, 초등학교 한지 공예 기법을 이용한 전통미술 지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승연, 한지의 물성을 이용한 기법연구, 세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이승희, 오색전지공예품의 조형성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영희,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으로서의 한지공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유라, 전통기법을 응용한 한지Textile Design 연구: 문화상품 개발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정민, 한국 전통 공예품 감상을 통한 종이조형 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학교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정화, 韓紙工藝技法을 통한 닥종이人形 研究, 전주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종훈, 창의적 융섭으로서의 문화콘텐츠,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주은, 한지 공예를 활용한 학습지도방안 연구: 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미술수업 중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진주, 전통한지공예기법을 활용한 문화상품 연구 개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혜은, 한지전통공예기법을 응용한 문화상품개발: 줌치기법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임덕현, 韓紙를 이용한 전통문양의 현대적 표현연구: 本人의 作品을 中心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장현, 전통 지호 공예 기법을 활용한 표현활동 연구: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전혜경, 전통 지승공예 제작 유래의 고찰과 창의적 디자인 접근 연구: 전통기법의 활용 및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정은희, 수제 한지를 이용한 공예품 제작 연구,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정유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 문화 체험 수업 모형 연구: 한지공예 체험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정현주, 전통한지를 통한 미술교육 효과 증진 방안,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정혜경, 전통 공예를 응용한 한지 수업 연구: 고등학교 미술 수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조봉석, 官畫/民畫의 주요 素材 활용을 통한 韓紙工藝作品의 質 向上 方案에 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조승환, 전통 지호공예의 역사적 고찰에 따른 현대 작품의 조형성 접근,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차미경, 한지공예를 활용한 아동미술교육의 발전적 적용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천영록, 한지 줌치기법을 이용한 문화상품 개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하진희, 교육을 통한 한지공예 활성화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한경희, 한지 지승기법을 이용한 문화 상품 개발 연구,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한규성, 조선시대 말기 지승에 대한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한미숙, 한지작업을 통한 유아 전통미술지도,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한아름, 전통소재를 활용한 공예문화상품 개발 전략 연구: 전통한지의 가치와

- 상품성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한오경, 조선시대 조각보의 미적 개념이 한국 현대 한지공예에 미친 영향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한정엽, 조선시대 지장(紙裝)가구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허은주, 한지를 활용한 표현기법 연구: 근대 이후 한국작가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홍근인, 한지 제작을 통한 중학교 미술 교육 지도 방안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홍연희, 중등미술교육에서 한지공예의 특성을 이용한 조형작품 지도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홍현주, 인클루시브 개념을 도입한 다문화가정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지공예 디자인을 대상으로,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황혜경, 전통미술 인식을 위한 중학교 한지공예 수업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학술지>

- 김은수·손진곤, 한지공예 학습을 위한 이러닝콘텐츠 설계, 이러닝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7(1), 2016, pp.76-80.
- 김용문, 원주 여성의 전통공예 현황 및 활성화, 아시아강원민속, 33, 2020, pp.91-127.
- 남상교, 지공예품의 동향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사범대학논문집, 6, 1989, pp.173-206.

- 박기수, 한국문화콘텐츠학의 현황과 전망: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6, 2006, pp.7-31.
- 박상천, ‘문화콘텐츠’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언어문화, 33, 2007, pp.179-209.
- 신순단·박옥미, 한지를 응용한 의상 및 공예품 활용방안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0(3), 2004, pp.67-77.
- 양성원, 박쥐문양을 활용한 한지 조명디자인 개발, 조형디자인연구, 17(4), 2014, pp.144-166.
- 양연경, 한지공예 스마트 콘텐츠의 하이브리드 웹앱 및 네이티브 앱 비교 분석과 사용성 평가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2016, pp.217-236.
- 양연경, 한지공예 하이브리드 웹앱 스마트 콘텐츠 개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 2015, pp.404-422.
- 유옥순·오옥선, 초등학생의 미적 감각 신장을 위한 한지공예 학습지도안 개발, 군산대학교 기초과학연구, 15, 2000, pp.101-116.
- 이기상, 문화콘텐츠학의 이념과 방향: 소통과 공감의 학, 인문콘텐츠, 23, 2011, pp.9-40.
- 이유라·전기홍·최수진, 창살문양을 응용한 한지공예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3(4), 2007, pp.316-328.
- 전철, 한지공예 기법의 원류 고찰과 한지공예의 분화, 펄프종이기술, 43(4), 2011, pp.11-22.
- 전철, 호남지방의 한지공예 실태, 예술문화, 9, 2013, pp.57-64.
- 전혜경·임철민, 전통지승공예의 기술적 고찰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 2020(2), 2020, pp.175-178.
- 정건용, 공예문화산업 지원정책 국내외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1), 2014, pp.581-590.

정미진 · 최기석, 한지를 이용한 조형예술작품 연구, 동양예술, 21, 2013,
pp.403-432.

조승환 · 전해경 · 임철민, 전통 지호공예의 조형적 특성과 현대 브랜드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학술대회, 2020, pp.34-35.

<인터넷 사이트>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s://www.ncic.go.kr>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법제처: <https://www.moleg.go.kr>

브런치: <https://brunch.co.kr/@bomnoon/2>

서울공예박물관: <https://craftmuseum.seoul.go.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31104084100004>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한지문화산업센터: <https://www.hanjicenter.kr>

ABSTRACT

Research Trend Analysis on Hanji Craft Culture

Yoo Seo Kyung

Traditional Cultural Contents Major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Arts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search trends on hanji craft culture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by collecting papers published in Korea from 2000 to 2020, to review the existing research system,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addition,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research by examining the research trend of hanji craft in terms of inheritance of hanji craft culture, the research trend of hanji craft culture industry in terms of promotion of hanji craft culture, and the research trend of hanji craft culture contents in terms of realization of the value of hanji craft culture. To this end, keywords of 'hanji craft' and

'traditional hanji craft' were searched at the sites of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and National Assembly Library from September 11 to September 30, 2021. The scope of analysis is limited to degree theses and journal papers, and a total of 94 dissertations including 80 dissertations and 14 journal dissertations, were finally analyzed.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research system of hanji craft culture, the year of publication, type of publication paper, research subject, and research method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umber of studies related to hanji craft culture began to increase in 2006, the highest in 2008, and decreased slightly after 2017. The types of publications included 79 master's theses, 14 academic journals, and 1 doctoral thesi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1 papers for human subject and 53 papers for material subject.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there were 46 literature reviews, 22 questionnaire surveys, 12 content analysis, 10 case studies, 3 interview surveys, and 1 web development. In this regard, research on consumer surveys, content analysis on various media, case studies of hanji crafts, interviews with experts such as intangible cultural assets or craft artists, and web development that incorporate IT technology into hanji crafts should be actively implemented in the future.

Second, the research trends of the hanji craft technique were classified into Jiseung(紙繩) craft, Jijang(紙裝) craft, Jiho(紙糊) craft, Jeonji(剪紙) craft, and the composite craf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udy on the composite craft was the most with 53 articles, followed by 17 articles on Jijang craft, 9 on Jiho craft, 8 on Jeonji craft, and 7 on Jiseung craft. As

for the study subjects of each hanji craft, the research on composite craft was the most common for both human subject and material subject, followed by Jijang craft, Jiho craft, Jeonji craft, and Jiseung craft. According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ccession of hanji craft culture, research work is required to illuminate the prototypes of individual craft as well as composite craft and enhance the value of transmission. In addition, research on the experience of various hanji crafts for human subject ranging from infants to the elderly and study on the application of hanji craft to physical objects including goods and services should be expended as social interest in craft culture is gradually increasing.

Third, research trends in the hanji craft culture industry were divided into the fields of development, distribution, exhibition, creation/production, and utiliz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number of published papers was 46 in the field of utilization, followed by 37 in the creation/production field, 8 in the development field, 2 in the exhibition field, and 1 in the distribution field. In terms of research subjects by hanji craft culture industry, research papers were published only in the field of development and utilization for the human subject, whereas research was conducted in all fields of the hanji craft culture industry for the physical subject, particularly in the fields of creation and production. In the study of hanji craft techniques by hanji craft culture industry, there were a lot of research on composite craft in the field of application, and all hanji craft techniques were published as thesis in the field of creation and production.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the culture of hanji crafts socially, research on various types of hanji crafts related to education, goods, and smart contents

development industries, competitions or exhibitions of relics, and the distribution industry of handicrafts should also be encouraged.

Fourth, research trend of hanji craft cultural contents were classified into ornaments, props, household goods, public contents, edutainment contents, and digital content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ublished research articles were the most in the edutainment content area with 40 articles followed by 27 pieces in the household goods, 10 pieces in the public content, 9 pieces in the decorative items, 6 pieces in the props, and 2 pieces in the digital content area. As for the research subjects for each hanji craft culture content, human subject occupied the largest proportion in the edutainment content area, and physical subject showed the largest proportion of research in the household goods field. As for the hanji craft techniques by hanji craft cultural contents, the study of complex crafts was the most in the field of edutainment contents, and each hanji craft was studied in the field of household goods. In the Hanji craft culture industry by hanji craft culture content, a lot of application research was conducted in the field of edutainment contents, and research in the field of creation and production was carried out in the area of household goods, props and decorations.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the value of hanji craft culture, the research on contents related to data or information produced in digital form and the exhibitions and programs for the public should be more invigorated. In addition, based on the hanji craft, it is necessary to expand research on accessories that consumers can freely carry and move, as well as items for interior decoration.